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수립
학술 용역

연구책임

황민섭 도시경영연구실 부연구위원

연구진

배준식 도시경영연구실 연구위원

김묵한 시민경제연구실 연구위원

김동윤 도시경영연구실 연구원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서울특별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제 출 문

서울특별시장 귀하

본 보고서를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수립 학술
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8년 11월

서울연구원 원장 서 왕 진



목차

01 연구개요	2
1_연구배경 및 목적	2
2_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4
3_성과평가 수행절차	6
02 마이크로크레딧 개요	10
1_이론적 배경	10
2_국내외 현황	16
03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현황 및 문제점	24
1_사업 개요	24
2_주요 현황	27
3_문제점 분석	35
4_유사사업 현황	41
04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전체성과 분석	48
1_성과평가 방법	48
2_사업 전체 성과평가 결과	50
3_폐업 및 대위변제 분석	66
05 민간위탁 수행기관 성과평가	76
1_성과평가 방법	76
2_민간위탁 수행기관 성과평가 결과	78

06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개선방안	92
1_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시사점	92
2_사업수행체계 개선방안	95
3_사업운영 개선방안	103
참고문헌	109
부록	112
Abstract	118

표

[표 2-1] 해외 마이크로크레딧 기관 현황	18
[표 3-1]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각 수행기관별 사업실적 현황 (2012. 3. ~ 2017. 12 기준)	27
[표 3-2] 연도별 자금지원현황	28
[표 3-3] 자금종류별 보증공급 및 대위변제관리 실적	29
[표 3-4]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지원자격별 선정 추이	30
[표 3-5]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업종별 보증공급 건수 및 금액	32
[표 3-6] 민간위탁 수행기관별 관리업체 지역적 분포	33
[표 3-7]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수혜대상자 신용등급 변화추이	35
[표 3-8] 보증취급일 이후 두 달 이내 폐업한 업체	37
[표 3-9] 자치구별 장애인,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인구와 마이크로크레딧 수혜자 수	39
[표 3-10] 미소금융 사업개요	42
[표 3-11] 굿모닝론 사업개요	43
[표 3-12] 햇살론 사업개요	44
[표 3-13] 햇살론 지원대상자별 대위변제 추세	45
[표 4-1] 수급탈피 업체	59
[표 4-2]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수혜자 건의사항	65
[표 4-3] 업종별 폐업 및 대위변제	66
[표 4-4] 지역별 폐업률	68
[표 4-5] 수행기관별 폐업 발생 시점	69
[표 4-6] 수행기관별 대위변제 발생 시점	70

[표 4-7] 지원금 종류별, 수행기관별 폐업률	71
[표 4-8] 지원금 종류별, 수행기관별 대위변제율(건수 기준)	72
[표 4-9] 지원금 종류별, 수행기관별 대위변제율(금액 기준)	72
[표 4-10] 폐업 사유	74
[표 5-1] 민간위탁 수행기관 성과평가 결과 종합	78
[표 6-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 내용	95
[표 6-2] 2018년 상반기 사업비 배분	107
[표 6-3] 수행기관별 예상 배분액	108

그림

[그림 1-1] 성과평가 수행절차	7
[그림 2-1] 유럽연합 대출건수 순위와 구제심도 순위 관계	14
[그림 3-1]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지원 절차	24
[그림 3-2]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추진체계 및 기관별 역할	26
[그림 3-3]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의 사고처리 흐름	26
[그림 3-4] 지원자격별 지원 분포 추이	31
[그림 3-5]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수혜업체 지역적 분포도	34
[그림 3-6] 서민금융상품별 신용등급 분포 비교	36
[그림 3-7] 자치구별 장애인,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인구와 마이크로크레딧 수혜자 수	40
[그림 3-8] 미소금융사업 추진체계	41
[그림 3-9] 굿모닝론 사업 추진체계	42
[그림 3-10] 햇살론 사업 추진체계	44
[그림 3-11] 햇살론 지원대상자별 대위변제 추세	45
[그림 4-1]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가치 체계	48
[그림 4-2]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성과평가 체계	49
[그림 4-3]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유입경로	50
[그림 4-4] 전체 MOU건수 (건)	51
[그림 4-5] 연계 프로그램 건수 (건)	51
[그림 4-6] 수행기관별 연간 개별 컨설팅 횟수 (건)	52
[그림 4-7] 수행기관별 연간 창업교육 시간 (시간)	52
[그림 4-8] 사후관리 효과성에 대한 인식	53
[그림 4-9] 수행기관 및 사후관리 인력과의 유대감 및 신뢰도	54
[그림 4-10] 수행기관의 사업 활동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55

[그림 4-11] 수행기관별 관리업체 생존율	56
[그림 4-12] 마이크로크레딧 수혜년도와 2017년도의 매출액 변화	57
[그림 4-13] 마이크로크레딧 수혜년도와 2017년도 부채 비교	57
[그림 4-14]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미소금융, 햇살론의 누적 대위변제율(금액기준) 비교	58
[그림 4-15] 마이크로크레딧 수혜업체의 고용근로자 수	60
[그림 4-16] 마이크로크레딧 수혜업체 고용근로자의 고용 형태	60
[그림 4-17] 사업전체 및 수행기관별 사회적 안정감	61
[그림 4-18] 사회적 안정감 세부 항목	62
[그림 4-19] 수행기관별 사업전반에 대한 만족도	62
[그림 4-20] 운영관련 만족도	63
[그림 4-21] 운영 관련 효과성 인식	63
[그림 5-1] 수행기관 성과평가 지표체계	77
[그림 5-2] 수행기관별 인력 점수	79
[그림 5-3] 수행기관별 조직 점수	80
[그림 5-4] 수행기관별 재정 점수	81
[그림 5-5] 수행기관별 발굴 및 선정 점수	82
[그림 5-6] 수행기관별 사후관리 점수	83
[그림 5-7] 수행기관별 사업운영 점수	84
[그림 5-8] 수행기관별 실적 점수	86
[그림 5-9] 수행기관별 경제적 성과 점수	87
[그림 5-10] 수행기관별 비경제적 성과 점수	88
[그림 5-11] 수행기관별 사업 만족도 점수	89
[그림 5-12] 수행기관별 본인사업 만족도	90
[그림 6-1] 중·단기적 사업수행체계 개편안	98
[그림 6-2] 장기적 사업수행체계 개편안	100
[그림 6-3] 신용분석을 위한 심리테스트 예시	104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학술용역 개요서

용역개요	용역명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수립 학술용역		
	용역금액	58백만원		
	용역기간	2018.3.29.~8.29.		
	용역사	(재)서울연구원	발주부서	서울시청 소상공인지원과
용역추진배경 및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세소상공인의 자립기반 지원을 위해 '12년 최초 시행한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의 효과성 등 사업성과 평가 ○ 대위변제 발생 시점, 원인, 문제점 등 실태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도출 및 관리전략 수립 ○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전반에 대한 진단 및 수행기관 성과평가 등을 통해 현 사업 추진체계 재설계 및 내실화 방안 마련 				
용역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간적 범위 : 서울시 전역, 국내·외 우수지역 ○ 시간적 범위 : 사업 최초 시작(2012.2.28.) 이후 ~ 현재 ○ 내용적 범위 :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수립 				
용역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및 수행기관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시사점 제시 ○ 관련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사업수행체계 개선방안 도출 및 장기적 관점에서의 비전 제시 ○ '발굴'·'선정'·'대출' 및 '상환'·'평가' 단계별 사업운영 개선방안 제안 				
용역성과 활용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용역 시행 후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추진체계 재설계 ○ 도출된 사업추진 개선방안을 바탕으로 '19년 이후 정책방향 설정 및 사전 준비 ○ 민간수행기관의 사업수행 실태분석 및 평가기준 마련 ○ 민간수행기관 역할 재정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작 성 자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성은 ☎2133-5530, 소상공인지원팀장: 김진경 ☎5543, 담당: 심순보 ☎5557



01

연구개요

- 1_연구배경 및 목적
- 2_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 3_성과평가 수행절차

01 | 연구개요

1_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 서울시에서 영세소상공인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해 2012년부터 시행한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성과 평가 필요성
 -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간 총 2,014개 영세소상공업체에 42,740백만 원의 대출지원금이 제공됨
 - 이에 대한 경제적·비경제적 효과와 수혜대상자들의 만족도 분석이 필요함
 - 또한 사업을 수행하는 6개 민간위탁기관에 대해서도 성과평가 및 수혜대상자 만족도 조사가 요구됨

-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의 대위변제 증가에 따른 원인 및 실태 분석 필요성
 - 대위변제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7년 말 기준 13.8%(누적 금액기준)에 달함
 - 대위변제율이 점차 감소하거나 유지되는 안정기에 들어선 미소금융이나 햇살론과 달리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대위변제율을 발생시점, 원인, 문제점 등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관리전략 수립이 필요함

2) 연구목적

-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성과평가
 -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전반의 경제적·비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사업

수혜대상자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함

- 현 사업추진체계가 홍보 및 발굴, 대출실행, 사후관리 등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의 각 추진단계에서 지닌 효과성 및 적합성을 분석함
-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의 6개 민간위탁 수행기관에 대한 역량 및 성과평가를 수행함

○ 대위변제 관리전략 수립

- 대위변제 발생 시점, 원인, 문제점 등 실태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향후 대위변제 관리전략을 수립함

○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중장기적 개선방안 제시

-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전반에 대한 진단 및 수행기관 성과평가 등을 통해 현 사업 추진체계 재설계 및 내실화 방안을 마련함

2_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1) 연구범위

○ 공간적 범위

- 서울시 전역(25개 자치구) 및 기타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지원금을 제공받은 업체가 속한 지역을 포함함
-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이하 “민생경제정책연구소”), 사단법인 한국 마이크로크레딧 신나는조합(이하 “신나는조합”),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하 “조계종”), 사단법인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이하 “사회연대은행”), 서울광역자활센터, 사회복지법인 열매나눔재단(이하 “열매나눔재단”) 등 6개 민간위탁 수행기관과 2012년부터 2017년까지의 수혜업체 총 2,014개의 사업장을 분석대상으로 함

○ 시간적 범위

- 사업시행연도인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개년을 분석대상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2018년 상반기 데이터를 활용함

○ 내용적 범위

-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전체사업 및 6개 민간위탁 수행기관 성과평가
- 대위변제 현황 분석 및 관리 방안 제안
-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의 중장기적 개선방안 도출

2) 연구방법

- 문헌연구 및 자료 분석 :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관련 이론적 배경 및 최근 마이크로크레딧 성과분석 기법 동향 연구와 주요 지표 분석

- 사례연구 : 마이크로크레딧 사업과 관련한 국내·외 사례 분석
- 외부전문가 자문 :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추진체계 관련 문제점 분석 및 지표체계 AHP 조사·분석
- 주요 사업추진주체 인터뷰 : 서울시 관계자, 서울신용보증재단 관계자, 6개 민간위탁 수행기관 실무자 및 사후관리전담 인력 등 사업의 주요 참여자를 대상으로 현안 및 문제점 분석
- 설문조사 :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수혜업체를 대상으로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의 경제적·비경제적 성과와 사업전반 및 민간위탁 수행기관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

3_성과평가 수행절차

1) 전체사업 성과분석

- 수행목적
 -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의 효과성을 도출함

- 내용 및 방법
 - 지표체계 작성, 설문조사, 인터뷰, 문헌분석을 활용함
 - 사업대상, 금리, 자금규모, 보증공급 실적 및 대위변제관리 실적 측면에서 국내 유사사업과 비교 분석을 수행함
 - 휴·폐업 및 대위변제의 원인과 실태를 분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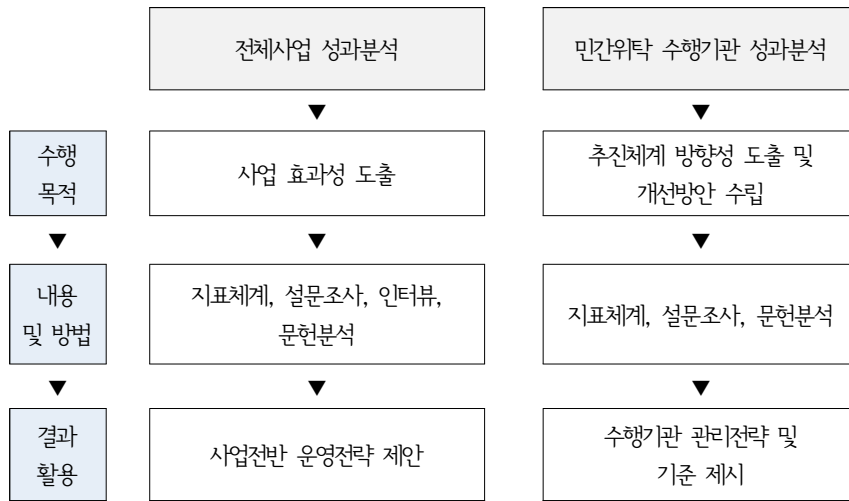
- 결과 활용
 -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전반에 관한 운영전략을 제안함

2) 민간위탁 수행기관 성과분석

- 수행목적
 - 민간위탁 수행기관의 개별성과를 분석하여 향후 사업 추진체계 방향성 도출 및 성과 개선방안을 수립함

- 내용 및 방법
 - 지표체계 작성, 설문조사, 문헌분석을 활용함

- 결과 활용
 -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수행기관 관리전략 및 기준을 제시함



[그림 1-1] 성과평가 수행절차

02

마이크로크레딧 개요

- 1_이론적 배경
- 2_국내외 현황

02 마이크로크레딧 개요

1_이론적 배경

1) 마이크로크레딧의 개념

○ 마이크로크레딧의 기원 및 시사점

- 1975년 무하마드 유누스(Muhammad Yunus)가 방글라데시의 그라민 은행 (Grameen Bank)을 설립해 빈곤층을 대상으로 소규모 대출 사업을 실시함
- 2006년까지 연 고객은 1,000만 명에 육박했으며, 지역빈곤층 600만 명 이상이 사업의 수혜를 받음
- 이는 시장기능을 통한 빈곤층의 신용공급 문제의 해결 가능성을 시사함
- 적절한 금융거래체계와 지원책을 동반할 시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유지될 수 있음을 입증하였음 (정영석 & 이기영, 2013)
- 마이크로크레딧은 단순히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양적 신용확대가 아닌 채무자의 내적정보를 활용해 정보 불완전성을 극복하고 채무자와 금융기관의 올바른 행동을 유도하는 인센티브 구조를 구축해야 함

○ 개념적 논의

-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은 빈곤층에 1인당 GDP보다 적은 규모의 대출을 제공하는 금융서비스로 사회적 금융, 마이크로파이낸스(microfinance) 등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지만 용도와 범위에 있어 구분됨 (임은의 & 정영순, 2015)
- 마이크로파이낸스는 빈곤층에 대한 소액대출 뿐 아니라 자금이체, 저축계좌, 보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크로크레딧보다 포괄적인 금융서비스를 의미하지만 한국에서는 이 둘을 구분해서 사용하지 않음

2) 마이크로크레딧에 관한 주요 논의

(1) 다양성

- 성공적인 사업모형에 대한 합의가 없기 때문에 적절한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는 마이크로크레딧을 수행하는 기관 형태, 활동영역 및 활동목표 등에 대한 다양한 실험이 필요함 (민세진, 2013)
- 기관형태 : NGO 및 재단, 비은행 금융기관, 마이크로파이낸스 협회, 신용협동조합, 은행, 저축은행, 정부기관, 종교기관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함
- 기관의 활동영역 : 기관형태의 다양성만큼 다양하게 존재하며, 그 예로는 전통적 은행 서비스, 창업교육, 사업 인큐베이터 서비스 등이 있음
- 마이크로크레딧의 목표 : 소외계층의 자활 외에도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촉진, 금융포용, 여성역량 강화 등 다양하게 존재함

(2) 경제학적 측면에서 마이크로크레딧이 극복해야 할 구조적 문제

-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시장의 비효율성
 - 대출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채무자의 신용등급 및 채무자가 수행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의 리스크에 대한 정확한 정보 부족으로 역선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대출실행 이후 채무자가 대출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상환에 최선을 다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하고 이에 대한 대출자의 통제력이 없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채무상환능력을 은폐하고 상환 유예를 위해 의도적으로 파산을 선언할 가능성이 존재함

- 높은 거래비용 발생
 - 대출금액과 상관없이 대출건수에 따라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운영비용이 증가함
 - 금융거래기록이나 금융지식이 부족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출단위당 거래비용이 증가함

- 지역밀착형 및 관계형 금융을 통한 구조적 문제 해결
 - 지역사회와의 유대에 기반을 둔 내부정보를 활용해 역선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 채무자와의 상호지속적인 관계 형성과 유지, 그리고 상시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도덕적 해이를 극복하고 사업 성공가능성과 상환율을 제고할 수 있음 (한국금융연구원, 2013)

(3) 마이크로크레딧의 사회적 기능과 지속가능성

- ① 마이크로크레딧의 사회적 목적을 중요시하는 관점
 -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의 높은 금리에 대한 회의적 시각
 - 사회적으로 볼 때 높은 금리를 감당해야 할 경우 창업을 수행하기 위한 충분한 투자기회가 부족함
 - 도덕적 해이나 역선택의 문제 등으로 높은 금리가 오히려 상환율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존재함
 - 초과수요가 발생한 신용할당의 상태에서 대출기관의 비효율적 운영으로 인해 초래되는 비용을 가난한 채무자들이 부담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함 (정영석 & 이기영, 2013)

 - 사회적 목적을 중시하는 마이크로크레딧 사업형태
 - 정부기관이 직접 신용공급에 참여하는 경우와 정부기관의 보조금에 의존하는 마이크로크레딧 수행기관이 낮은 금리로 신용을 공급하는 형태가 있음

- 암묵적인 금리규제를 실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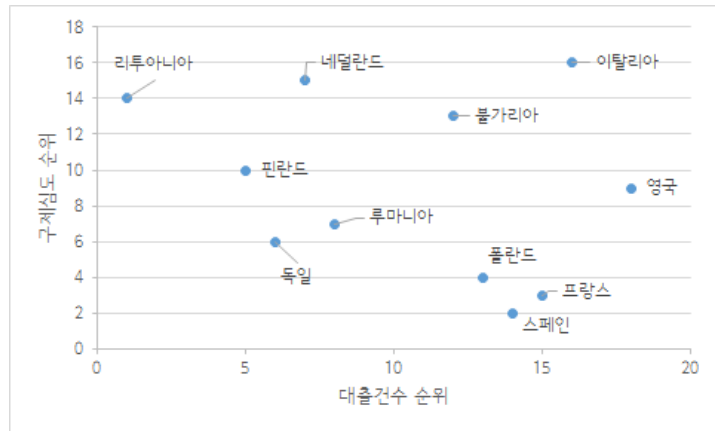
② 마이크로크레딧의 지속성을 증시하는 관점

- 인위적으로 금리를 낮게 책정할 경우 발생하는 경제적 문제
 - 금리의 자원배분기능 상실 및 저소득층의 신용에 대한 접근성 제약 : 금리가 낮으면 제 1, 2 금융권에서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이들의 가수요가 증가하고, 대출기관 입장에서는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채무자를 선택함으로써 대출이 절실한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신용공급은 오히려 축소되는 또 다른 형태의 도덕적 해이 및 역선택이 발생할 수 있음
 - 금융서비스의 자생적인 발전 저해요인으로 작용 : 정부지원에 의한 저금리로 민간 금융기관의 진입을 어렵게 하고 경쟁구조를 배척해 자생적인 발전을 저해할 수 있음
 - 대출자금의 지속적인 확대 저해 : 낮은 금리로 인해 수익성이 떨어지면 민간 투자를 충분히 유치할 수 없고, 따라서 저소득층에 대해 의미 있는 규모의 구제금을 지원하기 어려움 (정영석 & 이기영, 2013)
 - 낮은 금리로 대출금 상환이 필요 없는 보조금이라고 인식해 상환의지 약화 및 상환을 감소를 초래할 수 있음

(4) 마이크로크레딧의 구제 범위(social outreach)와 심도(depth of outreach)

- 대출재원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대출건수와 평균 대출규모는 반비례함
- 최대한 많은 이들에게 대출혜택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출을 제공 받은 취약계층이 경제적으로 자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일정 수준 이상의 평균 금액을 지원해야 함
- 이런 상충관계로 인해 국가들마다 상황과 목적에 따라 다양한 조합의 구제 범위와 심도를 보임
- 아래 그림은 유럽연합 마이크로크레딧의 구제 범위와 심도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로 대출건수가 많아질수록 구제의 심도(1인당 총 국민소득(GNI) 대비 평균 대출규모)가 낮아지는 것을 보임 (민세진, 2013)



자료 : EMN(2012), 민세진(2013)

[그림 2-1] 유럽연합 대출건수 순위와 구제심도 순위 관계

(5) 마이크로크레딧의 효과

○ 마이크로크레딧의 효과에 대한 논의

- 마이크로크레딧이 지닌 긍정적 효과로는 취약계층의 자영업 지원을 통한 고용창출과 빈곤 완화, 건강 및 교육의 향상, 여성 역량 강화 등이 있음 (Clark 외, 1999; Kim 외, 2007)
- 이에 반해 마이크로크레딧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은 주로 선진국의 사례에서 발견되는데, 이는 프로그램 수혜자가 지원금을 대출받아 창업을 해도 1년 이내에 폐업하는 수가 전체의 약 1/3에 달해, 투입 비용에 비해 극소수의 취약계층만이 빈곤에서 탈피한 것임을 강조함 (Sanders, 2002)

○ 마이크로크레딧의 효과와 관련된 국내사례 연구 및 논의 부족

- 마이크로크레딧의 효과에 대한 논의는 주로 해외 사례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내 마이크로크레딧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임은의 & 김학령, 2018)

-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전반의 효과와 그에 대한 측정변수
 -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의 개인차원의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에서는 본인 만족도와 프로그램 만족도, 자기효능감, 사회적 안정감, 사회참여 확대와 기부행위 증가와 같은 변수가 이용됨
 - 가구차원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수급탈피, 소득, 거주환경 개선 등의 변수가 사용됨
 - 사업체 차원의 경우에는 매출액, 본인 사업 만족도, 생존율, 생존기간, 순수익, 고용 노동자 수, 창업 후 변화 등의 변수가 사용됨
 - 이처럼 효과를 분석하는데 만족도나 창업 후 변화 등의 변수가 사용된 것은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이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활이지만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심리적 관점을 내포한 지표들이 포함되어야 함을 나타냄
 - 기존의 한국 마이크로크레딧 효과 측정 연구들은 경제적 관점의 지표에 편중되어 왔으며, 이는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의 효과를 제대로 측정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임은의 & 김학령, 2018)
 - 따라서 마이크로크레딧의 효과를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지원 이후의 변화에 대해 다각적인 측면에서 주목해야하며, 효과에 대한 경제적 관점과 사회 심리적 관점의 논의들이 균형 있게 진행되어야 하고, 이를 반영한 지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함 (임은의 & 김학령, 2018)

2_국내외 현황

1) 마이크로크레딧의 국내 발전과정

(1) 민간수행기관

- 우리나라 마이크로크레딧 시행 배경
 - 우리나라 마이크로크레딧은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의 본격화, 빈곤과 빈부격차의 심화, 그리고 서민금융기관 역할 약화의 시대적 상황에서 시작됨(김정원, 2015)
 - 1998년 금융위기와 구조조정으로 초래된 대규모 퇴직자들이 자영업을 선택함으로써 자영업자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주기적으로 발생한 경제적 불황은 이들을 파산으로 몰아감
 - 또한, 금융위기 이후 담보와 신용등급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변화된 대출방식은 금융시장에 서민들이 접근하기 어렵게 만들

- 신나는조합(비영리법인)
 - 2000년, 그라민은행의 지원을 받아 시작해 농어촌지역과 도시지역의 공동체를 주요대상으로 하며 공동책임을 강조하는 집단대출 방식을 채택함
 - 공동체는 3~5인으로 구성되며 지역의 지도자나 성직자 등의 자원봉사자가 교육 훈련을 수행함
 - 2008년까지 157개 공동체에 30.7억 원을 대출했으며 2009년 희망키움뱅크 사업 및 2010년 서울시 희망드림뱅크사업을 시행함
 - 2017년 기준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미소금융중앙재단 민간복지사업자 사회적 기업 융자사업, 국민연금공단 취약계층 보험료 융자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사회연대은행(비영리법인)
 - 2002년, 한국 YMCA 전국연맹 등 사회기관이 공동 참여해 10억 원의 기금으로 창설됨
 - 개별대출방식을 채택하고 도시의 취약계층에 창업자금, 경영기술 등을 지원하는 등 전문 인력을 통한 체계적인 교육훈련과 사후관리 서비스를 중시함
 -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총 1,165건, 248.8억 원의 대출을 도왔으나, 2009년 미소금융재단의 출범과 함께 활동이 점차 약화됨
 - 2017년 기준, 약 26억 원의 취약계층 창업자금과 약 30억 원의 사회적 기업 자금을 지원함
 - 이는 기존의 시민단체형 기관과의 상호보완적인 기능을 수행하기보다는 서로의 역할을 대체하는 배타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임 (김명록, 2016)
- 두 기관 모두 초기에는 민간기부금을 주요재원으로 충당했으나 2005년 보건복지부 기금 조성 이후 민간위탁사업을 중점적으로 실시함
- 이외에도 아름다운재단, 열매나눔재단, 해피월드복지재단, 소상공인진흥원, 법무부보호복지공단,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광역자활센터 등의 기관이 존재함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 사업 시행 배경
 - 2008년 금융위기에 따라 제1, 2 금융권에 접근할 수 없는 취약계층이 급증하게 되면서, 2007년에 약 89만 명 수준이었던 대부업체 거래자 수는 2010년 247만 명(약 52,556억 원 규모) 수준으로 대폭 상승함(한국금융연구원, 2012)
 - 이에 2009년부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도 일정 재원을 통해 민간수행기관에 사업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사업에 참여함
 - 2005년부터 보건복지가족부가 매해 20억 원씩 지원해오던 마이크로크레딧

위탁사업을 2009년 330억 원으로 증액하여 희망키움뱅크를 발족하였지만 해당연도 하반기에 미소금융중앙재단을 설립해 사업을 통합하면서 희망키움뱅크의 신규 사업을 종료함

- 미소금융사업은 사업 시행연도부터 2015년까지 대출건수는 6,878건에서 42,564건, 대출금액 규모는 241억 원에서 3,845억 원으로 확대되는 등 급격한 성장을 이룸
- 2016년 6월 기준, 미소금융중앙재단은 34개의 지역법인 지점, 6개 그룹사, 79개의 기업재단 지점, 그리고 5개 은행 및 57개 은행재단지점 등 총 170개 지점을 운영 중임

2) 마이크로크레딧의 해외 현황

(1) 해외 현황

[표 2-1] 해외 마이크로크레딧 기관 현황

	전체	비은행 금융기관	NGO	은행	신용조합	농촌은행
1. 기관 수	774	333	205	109	91	18
2. 자산규모 (백만 USD)	123,875	33,098	11,902	67,152	10,415	1,118
3. 침투효과						
대출금 (백만 USD)	29,438.30	9,897.90	4,184.00	14,489.60	545.30	255.80
채무자 수 (천명)	115,010.6	34,131.7	34,099.4	42,561.7	2,449.6	1,480.8
기관당 채무자 수	148,593	102,497	166,338	390,474	26,918	82,266
4. 재무적 성과						
자산수익률 (ROA)	2.30%	2.40%	4.50%	1.80%	1.30%	2.10%
자본수익률 (ROE)	12.60%	13.50%	14.90%	11.90%	7.70%	11.60%
5. 대출금리						
자금이용수익/자산	18.30%	22.80%	17.20%	17.20%	12.90%	19.20%
6. 대출자산 건전성						
30일 연체율	7.20%	7.00%	2.90%	9.00%	6.30%	10.00%
90일 연체율	5.10%	5.20%	2.20%	6.10%	4.60%	7.10%

자료 : Microfinance Information Exchange (MIX) (2018)

- 기관수
 - 마이크로크레딧 관련 기관수는 전체 774개로 그 중 비은행 금융기관이 333개(43.0%), NGO가 205개(26.5%), 은행이 109개(14.1%), 신용조합이 91개(11.8%), 농촌은행이 18개(2.3%)를 차지함

- 자산규모
 - 자산규모는 전체 \$123,875백만으로 은행(54.2%), 비은행 금융기관(26.7%), NGO(9.6%), 신용조합(8.4%), 농촌은행(0.9%) 순으로 많음

- 침투효과
 - 대출금과 채무자 수, 그리고 기관 당 채무자 수 모두 은행이 제일 많았고, 그 뒤로 비은행 금융기관과 NGO 순으로 많지만, 기관 당 채무자 수에서는 NGO가 비은행 금융기관에 크게 앞섬

- 재무성과
 - 재무성과에서는 NGO가 자산수익률 및 자본수익률에서 모두 가장 높고, 그 뒤로 비은행 금융기관과 은행 순으로 높음

- 대출 금리
 - 대출 금리는 가장 낮은 12.9%(신용조합)에서부터 가장 높은 22.8%(비은행 금융기관)까지 다양함

- 연체율
 - 30일 연체율은 NGO가 가장 낮은 2.90%를 보였으며 농촌은행이 가장 높은 10.00%를 보임
 - 90일 연체율은 모든 기관이 30일 연체율보다 낮은 수치를 보였으며 이 또

한 30일 연체율과 마찬가지로 가장 낮은 연체율(2.20%)은 NGO에서, 가장 높은 연체율(7.10%)은 농촌은행에서 발생함

(2) 해외 기관

○ 미국 ACCION America

- ACCION America는 1991년에 설립한 미국 내 가장 큰 비영리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으로 25개 이상의 현장사무소 및 인터넷 대출 시스템을 갖춘
- ACCION America의 재원은 정부 지원금이 20%, 지역 민간기부금이 50%, 기금 이자수익 및 용자수수료, 용자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자체 자금(상환이자, 연체료 등)이 30% 정도 차지하며, 민간 기부금은 재단, 기업, 지역은행, 상공회의소 등과의 협력관계를 통해 마련되며 2013년 기준 713.5만 달러를 지원받음
- 소액대출서비스의 평균 금리는 약 16%이며, 대출규모는 300달러에서 100만 달러까지 다양함 (신용회복을 위한 소액금융은 700달러에서 시작해 상환실적에 따라 1만 달러까지 대출 가능)
- 대출심사는 영세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주요 척도로 활용하며 이를 파악하기 위해 서류심사, 면담, 위원회 회부 등의 절차를 거침
- ACCION America는 비경제적 서비스를 강조하는데, 이들의 창업 및 경영교육(가격결정, 고객서비스, 품질관리, 시장 환경의 변화 진단, 그리고 홍보 및 마케팅 등이 교육의 주요 내용)이 단순히 강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게임, 집중토론, 역할놀이 등 수혜대상자들이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 사후관리는 전화와 방문상담을 통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며 대출 수혜자들 간의 모임을 통해 지역 정보나 서비스가 공유됨
- ACCION America는 2016년 한 해 동안 약 18,000명의 영세소상공인에 약 4천만 달러(평균 12,000 달러)의 대출금을 제공했으며 지원받은 업체의 약 96%가 생존했고, 이로 인해 10,5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거나 유지되었다고

추정됨 (ACCION America, 2017)

○ 프랑스 ADIE*

- 프랑스 ADIE는 1989년 마리아 노왁(Maria Nowak)이 방글라데시의 그라민 은행의 영향을 받아 설립한 소액금융기관으로 설립 이후 지금까지 매주 평균 약 160,000 유로를 1,000개의 업체에 지원함
- ADIE는 은행에서 저리(평균 약 1%)로 대출한 자금을 다시 평균 8%의 금리(상환실적에 따라 조정 가능)로 대출해 주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이 전체 재원의 약 20%를 구성하며 나머지는 주정부 보조금과 민간 기부금이 보완함
- 사업대출은 최대 1만 유로까지이며 최대 상환기간은 48개월임
- 수혜대상자에 대한 대출심사 시 수취에 의존한 절대적 평가보다는 신청자의 성실성, 상환의지 등 정성적 평가를 더 중요시함
- ADIE 또한 창업교육과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창업교육과 컨설팅 상담은 사업장 위치 선택, 홍보, 회계 관리 등에 대해 이루어지고 많은 수(2012년 기준 약 1,80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이에 참여함
- 주정부 및 보증기구들의 보증을 이용해 위험관리를 하기 때문에 ADIE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위험은 13% 정도임 (FGIE 보증이 55%, 은행이 20%, 국영은행 예금공탁금고 5%, 지역보증기금 4% 등)
- 2012년에 발생한 대출실적 13,060건 중 10,914건이 사업 대출이었으며, 연체율은 7.37%, 손실률은 2.53%였음

* ADIE 웹사이트 (<https://www.adie.org/microfinance-in-france>) 참고하여 작성 (검색일자: 2018.09.01.)

03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현황 및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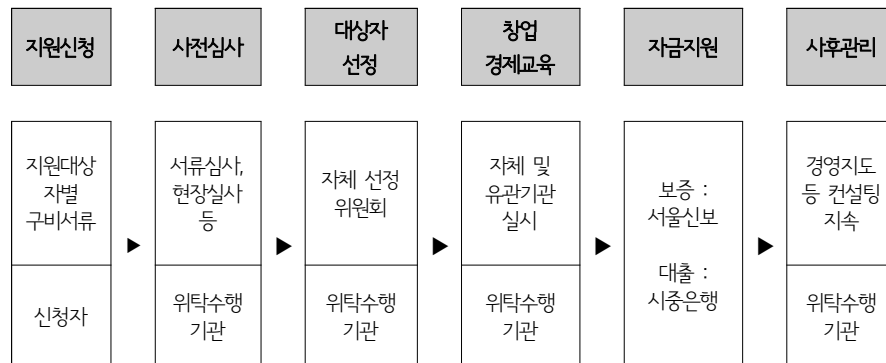
- 1_사업 개요
- 2_주요 현황
- 3_문제점 분석
- 4_유사사업 현황

03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현황 및 문제점

1_사업 개요

1) 사업개요

- 지원 대상 : 서울 소재 사업장(창업 예정지), 만 20세 이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연소득 3천만 원 이하의 저소득층, 여성가장, 실업자, 한부모가정, 다동이가정, 다문화가정, 장애인, 새터민, 꿈나래통장 저축 완료자
 - 신용등급 제한 없음
 - 사치·향락·유혹 업종 및 신용관리정보 보유자 등은 제외함
- 지원조건
 - 금리 : 3.3% (서울시 이차보전 1.5%, 지원대상자 부담 1.8%), 고정금리
 - 지원한도 : 창업기업당 3천만 원 이내, 경영개선자금의 경우 2천만 원 이내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5년(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 대출은행 : 우리은행
- 지원 절차



[그림 3-1]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지원 절차

- 사업대상자격자가 신청서류를 민간위탁 수행기관에 제출하면, 서류심사·현장 실사면접의 과정을 통해 해당 수행기관이 대상자를 선정함
- 선정된 대상자는 해당 수행기관의 창업교육을 제공받으며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지급이 완료되면 지정 은행에서 대출금이 지급됨
- 수혜대상자가 상환을 지속하는 동안 민간위탁 수행기관은 경영 컨설팅을 통해 해당업체를 지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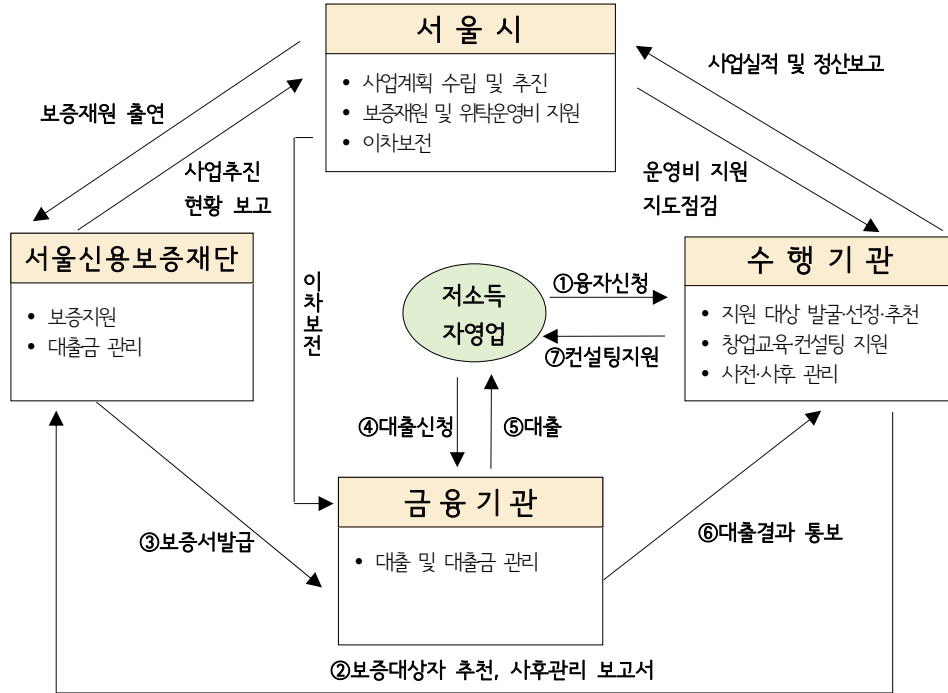
○ 위탁 개요 및 추진경위

- 수행기관 : 민생경제정책연구소, 신나는조합,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사회연대은행, 서울광역자활센터, 열매나눔재단 등 6개 기관
- 2012년 2월 28일에 최초 공모 및 계약 (2012. 03. 26. ~ 2015. 03. 25.)
- 2015년 3월에 6개 민간위탁 수행기관 재계약 : 사회연대은행, 신나는조합, 열매나눔재단, 서울광역자활센터 등 4개 수행기관은 2년 9개월(2015. 03. 26. ~ 2017. 12. 31.), 민생경제정책연구소,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등 2개 수행기관은 1년 9개월(2015. 03. 26. ~ 2016. 12. 31.)
- 2016년 12월에 민생경제정책연구소,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등 2개 수행기관 1년 재계약(2017. 01. 01. ~ 2017. 12. 31.)
- 사업비(민간위탁금) : 1,073백만 원 (2017년)

○ 사업수행체계

- 서울시 : 전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며,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보증재원을 지원하고 민간위탁 수행기관에 운영비를 지급하며, 사업 수혜대상자에 대한 이차보전을 수행함
- 서울신용보증재단 : 수혜대상자에 보증을 지원하며 대출금을 관리함
- 수행기관 : 지원 대상을 발굴하며 사업 수혜자들에 대한 창업 전 교육 및 사후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함

- 금융기관 : 대출 및 대출금을 관리함



[그림 3-2]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추진체계 및 기관별 역할

○ 사고처리 흐름

신용보증사고통지 ▶ 신용보증사고처리 ▶ 재산조사(3개월) ▶ 대위변제 ▶ 구상채권관리

[그림 3-3]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의 사고처리 흐름

- 채권은행과 서울신보 간 신용보증약관에 따라 사고사유(연체, 파산 등) 발생 시 사고 통지함
- 채권은행으로부터 대위변제청구가 있을 시 채무자를 대신하여 원리금 변제하고 구상채권을 취득함

2_주요 현황

1) 사업실적 현황

- 보증지급 실적
 - 2017년 말 기준 누적 대출실적 : 427억 4천만 원 (2,014건)
- 대위변제관리 실적
 - 2017년 말 기준 누적 대위변제 : 59억 6백만 원 (340건)
 - 누적 대위변제율은 건수 기준으로 16.9%, 금액 비중으로는 전체 대출금액의 약 13.8%를 차지함

[표 3-1]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각 수행기관별 사업실적 현황 (2012. 3. ~ 2017. 12 기준)

(단위: 백만 원)

기관명	대출금액		(보증) 잔액		대위변제		대위변제율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계	2,014	42,740	1,438	25,386	340	5,906	16.9	13.8
사회연대은행	289	6,061	209	3,769	38	642	13.1	10.6
신나는조합	419	8,993	307	5,334	58	954	13.8	10.6
민생경제정책 연구소	493	10,964	355	6,495	90	1,687	18.3	15.4
얼매나눔재단	328	6,306	216	3,341	67	1,104	20.4	17.5
서울광역 자활센터	268	5,748	202	3,774	43	721	16.0	12.6
대한조계종 사회복지재단	217	4,669	149	2,673	44	798	20.3	17.1

2) 자금 종류별 지원 현황

○ 자금 종류별 보증지급 실적현황

-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경영개선지원금은 총 743개 업체에 12,679백만 원이 제공되었고 창업지원금은 1,272업체에 30,061백만 원이 제공되었음
- 경영개선지원금을 제공받은 업체는 전체 수혜 업체의 36.9%이며 금액대비는 29.7%를 차지함

[표 3-2] 연도별 자금지원현황

*괄호는 해당연도 전체 지원금대비 백분율

지원금 종류	연도	지원업체수 (건)	지원 금액 (백만 원)
경영개선 지원금	2012	92(43.8)	1,479(36.1)
	2013	128(31.1)	2,218(25.4)
	2014	136(37.4)	2,296(29.2)
	2015	113(34.9)	1,877(26.9)
	2016	133(38.2)	2,247(30.7)
	2017	141(39.5)	2,562(33.0)
	소계	743(36.9)	12,679(29.7)
창업 지원금	2012	118(56.2)	2,620(63.9)
	2013	283(68.9)	6,513(74.6)
	2014	228(62.6)	5,575(70.8)
	2015	211(65.1)	5,095(73.1)
	2016	215(61.8)	5,064(69.3)
	2017	216(60.5)	5,194(67.0)
	소계	1,271(63.1)	30,061(70.3)
총 합계		2,014	42,740

○ 자금 종류별 대위변제 현황

[표 3-3] 자금종류별 보증공급 및 대위변제관리 실적

지원금 종류	업체 수	대위변제금액 (백만 원)
경영개선자금	117(15.7%)	1,412(11.2%)
창업자금	223(17.5%)	4,483(14.9%)
총합계	340(16.9%)	5,906(13.8%)

- 대위변제가 발생한 업체 중 경영개선자금을 대출받은 업체수는 117개로 전체 대위변제 업체의 34.4%를 차지하며, 창업자금을 대출받은 업체는 223개로 65.6%를 차지함
- 대위변제금액은 경영개선자금이 1,771백만 원으로 전체 대위변제 금액의 25.1%를 차지하고 창업자금은 5,273백만 원으로 74.9%를 구성함
- 경영개선자금을 지원받은 업체의 15.7%에서 대위변제가 발생했으며 금액기준으로는 14.0%에 해당하고,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17.5%에서 대위변제가 발생했으며 금액기준으로는 14.9%에 해당함
- 경영개선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보다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업체에서 대위변제가 다소 높게 발생함

3) 지원자격별 지원 현황

○ 지원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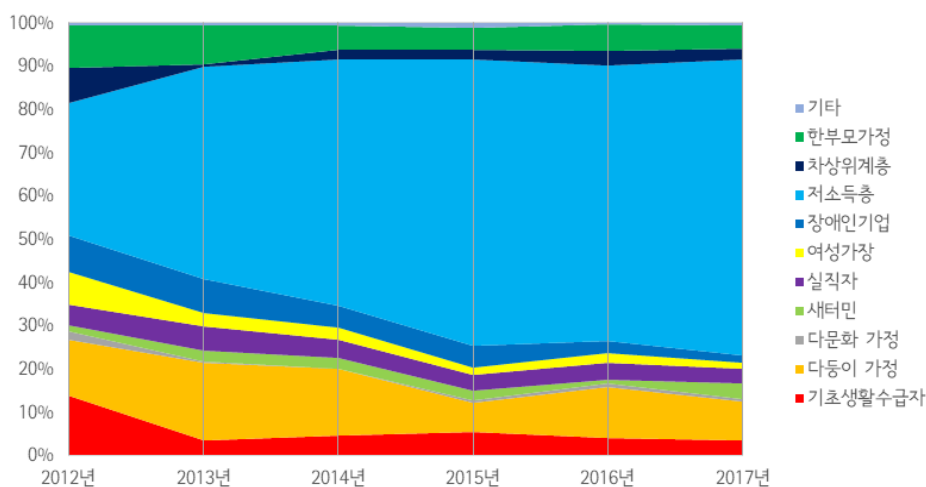
- 2017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12명(3.4%), '다동이가정'은 32명(9.0%), '다문화 가정'은 2명(0.6%), '새터민'은 13명(3.6%), '실직자'는 12명(3.4%), '여성가장'은 5명(1.4%), '장애인기업'은 6명(1.7%), '저소득층'은 245명(68.6%), '차상위계층'은 9명(2.5%), '한부모가정'은 19명(5.3%), 기타 '서울 희망플러스통장 가입자' 및 '서울꿈나래통장 저축 완료자'는 2명(0.6%)이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에서 지원금을 제공받음

- 사업시행 연도인 2012년의 지원자격별 수혜 분포는 ‘기초생활수급자’ 29명(13.8%), ‘다둥이가정’ 27명(12.9%), ‘다문화 가정’ 4명(1.9%), ‘새터민’ 3명(1.4%), ‘실직자’ 10명(4.8%), ‘여성가장’ 16명(7.6%), ‘장애인기업’ 18명(8.6%), ‘저소득층’ 64명(30.5%), ‘차상위계층’ 17명(8.1%), ‘한부모가정’ 21명(10.0%), ‘기타’ 1명(0.5%)으로 2017년의 분포에 비해 더 다양한 자격의 지원자들이 자금을 지원받음

[표 3-4]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지원자격별 선정 추이

대상자격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총합계
기초생활수급자	29	14	17	17	14	12	103
다둥이가정	27	74	56	22	41	32	252
다문화가정	4	1	0	2	3	2	12
새터민	3	10	9	7	3	13	45
실직자	10	24	15	12	13	12	86
여성가장	16	12	10	6	8	5	57
장애인기업	18	32	19	16	10	6	101
저소득층	64	202	207	215	222	245	1,155
차상위계층	17	3	8	7	11	9	55
한부모가정	21	36	21	16	22	19	135
기타	1	3	2	4	1	2	13
총합계	210	411	364	324	348	357	2,014

-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대상자격별 지원 추세를 분석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여성가장’, ‘장애인기업’ 등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저소득층’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음
- 특히 ‘저소득층’은 2012년 64명(30.5%)에서 2017년 245명(68.6%)으로 약 282.8%의 증가를 보임



[그림 3-4] 지원자격별 지원 분포 추이

4) 업종별 지원현황

○ 지원 업체 수

-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지원받은 업체의 수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도매 및 소매업체’ 697개(34.6%), ‘숙박 및 음식점업’이 520개(25.8%),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이 213개(10.6%), ‘제조업’이 125개(6.2%), ‘교육 서비스업’이 113개(5.6%) 등 순으로 많았음

○ 지원 금액

-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제공된 지원금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도매 및 소매업’이 14,116백만 원(33.0%), ‘숙박 및 음식점업’이 12,349백만 원(29.0%),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이 4,381백만 원(10.3%), ‘제조업’이 2,628백만 원(6.1%), ‘교육 서비스업’이 2,297백만 원(5.4%) 순으로 많았음

[표 3-5]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업종별 보증공급 건수 및 금액

대분류업종명	업체 수		보증금액	
	건	%	백만 원	%
건설업	34	1.7	614	1.4
교육 서비스업	113	5.6	2,297	5.4
금융 및 보험업	1	0.0	15	0.0
도매 및 소매업	697	34.6	14,116	33.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3	0.6	280	0.7
부동산업	47	2.3	956	2.2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34	1.7	586	1.4
숙박 및 음식점업	520	25.8	12,349	28.9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62	3.1	1,402	3.3
운수 및 창고업	51	2.5	1,167	2.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52	2.6	991	2.3
정보통신업	52	2.6	958	2.2
제조업	125	6.2	2,628	6.1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213	10.6	4,381	10.3
총합계	2,014	100.0%	42,74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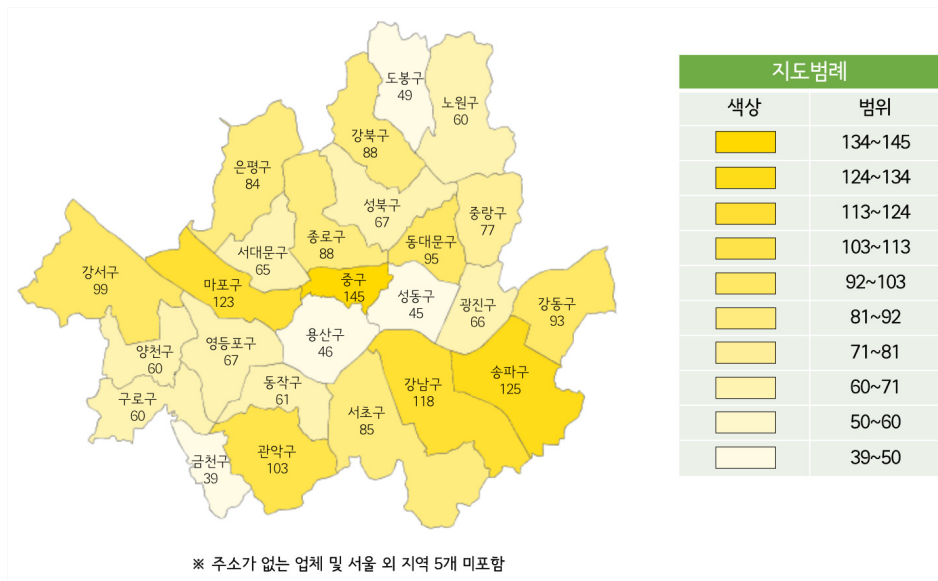
5) 지역별 분포

- 수혜업체 사업장의 지리적 분포
 -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의 수혜를 받은 사업장의 주소는 중구(7.2%), 송파구(6.2%), 마포구(6.1%), 강남구(5.9%), 관악구(5.1%), 강서구(4.9%), 동대문구(4.7%), 종로구(4.4%) 등 순으로 많았음
- 민간위탁 수행기관의 지리적 분포
 - 중구(사회연대은행, 열매나눔재단), 종로구(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민생경제정책연구소), 서대문구(신나는조합), 강남구(서울광역자활센터) 등 민간위탁 수행기관의 지리적 분포가 종로·중구·서대문구 일대에 편재해 있음

[표 3-6] 민간위탁 수행기관별 관리업체 지역적 분포

	대한 불교 조계종	민생 경제정책 연구소	사회 연대은행	서울 광역자활 센터	신나는조 합	열매 나눔재단	총
강남구	6	17	17	38	25	15	118
강동구	6	26	15	16	17	13	93
강북구	6	43	12	9	11	7	88
강서구	12	31	11	9	24	12	99
관악구	17	21	12	10	29	14	103
광진구	3	17	5	18	12	11	66
구로구	9	10	10	9	11	11	60
금천구	8	5	5	4	10	7	39
노원구	8	17	9	8	12	6	60
도봉구	7	12	8	7	9	6	49
동대문구	15	15	19	14	18	14	95
동작구	6	15	11	11	14	4	61
마포구	7	24	19	16	25	32	123
서대문구	9	13	6	9	18	10	65
서초구	10	14	15	14	16	16	85
성동구	2	10	6	12	10	5	45
성북구	6	22	10	6	16	7	67
송파구	8	41	16	17	30	13	125
양천구	8	16	7	4	10	15	60
영등포구	8	20	10	4	17	8	67
용산구	1	8	11	6	9	11	46
은평구	10	20	9	5	22	18	84
종로구	18	22	12	6	16	14	88
중구	22	24	21	9	26	43	145
중랑구	5	28	13	6	11	14	77
인천 계양구	0	1	0	0	0	0	1
양구군	0	0	0	0	0	1	1
고양	0	1	0	0	0	0	1
광주	0	0	0	0	0	1	1
주소 없음	0	0	0	1	1	0	2
총계	217	493	289	268	419	328	2,014

- [표 3-6]에 나와 있듯이 사회연대은행과 조계종을 제외한 나머지 4개 기관은 각기 위치한 지역구에서 가장 많은 수혜대상자를 발굴함 (조계종은 해당 기관이 속한 종로구에서 같은 자치구에 속한 민생경제정책연구소 다음으로 많은 수혜자를 발굴했음)



[그림 3-5]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수혜업체 지역적 분포도

3_문제점 분석

1)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의 방향성 관련 문제점

-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본연의 목적이 약화될 가능성 존재
 - 사업의 원래 취지인 금융권에서 소외된 사회적 약자의 자활 보다는 대위변제에 평가의 초점을 둠
 - 따라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할 취약계층 보다는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높은 신청자가 수혜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음
 - 2012년에 전체 수혜대상자 중 34.8%를 차지하던 1~4등급의 비중이 2017년에 66.9%로 증가한 것에 비해 7등급 이하의 비중은 28.6%에서 9.0%로 감소함 (특히 1등급은 2012년에 1% 이하였지만, 2017년에는 27.2%로 증가했음)

[표 3-기]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수혜대상자 신용등급 변화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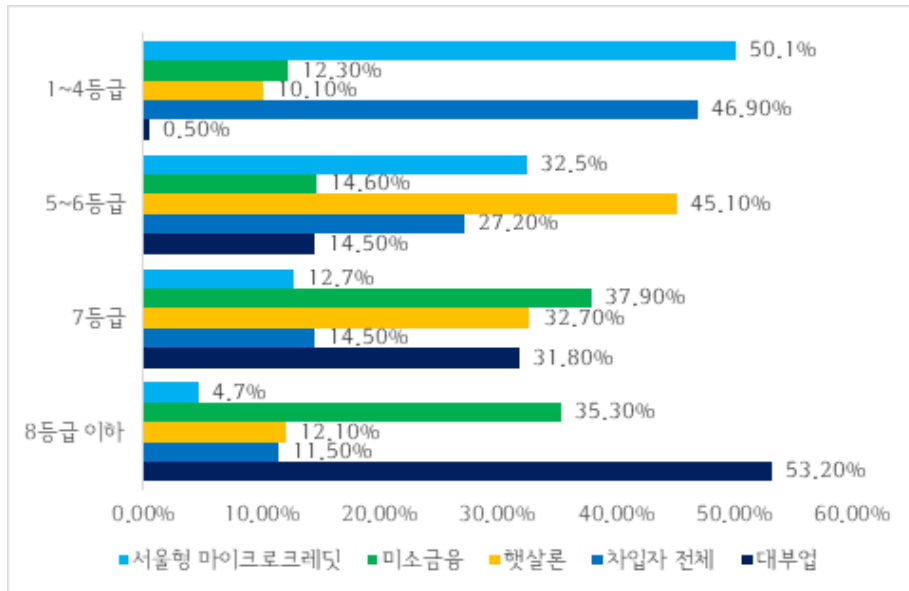
보증실행 연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총합계	백분율
1 등급	2	32	35	28	57	97	251	12.5%
2 등급	24	62	46	32	49	66	279	13.9%
3 등급	26	46	40	29	30	37	208	10.3%
4 등급	21	57	56	45	53	39	271	13.5%
5 등급	21	55	58	56	54	41	285	14.2%
6 등급	55	76	68	71	55	45	370	18.4%
7 등급	36	66	48	46	38	22	256	12.7%
8 등급	15	13	13	17	12	10	80	4.0%
9 등급	9	2	0	0	0	0	11	0.5%
등급 없음	1	2	0	0	0	0	3	0.1%
총합계	210	411	364	324	348	357	2,014	100.0%

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 내부자료

- 2017년 기준 신용등급 1~4등급의 누적 비중은 전체 보증의 50.1%를 차지하며 이는 미소금융(12.3%), 햇살론(10.1%) 등 다른 유사사업과 비교하면

높은 수치임

- 마찬가지로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의 수혜대상자 중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백분율은 17.4%로 미소금융의 73.2%, 햇살론의 44.8% 보다 낮음
- 이처럼 제도금융권에도 충분히 접근이 가능한 이들이 사업 수혜자의 절반 이상(66.9%)을 차지하는 것은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이 원래의 취지에서 다소 벗어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함



자료: 한국개발연구원(2013), 금융위원회(2014), 금융감독원(2013, 2014), 김명록(2016)

[그림 3-6] 서민금융상품별 신용등급 분포 비교

2) 사업추진체계 관련 문제점

- 수혜대상자에 대한 자금조달 속도 지연 가능성
 - 복잡한 사업추진체계로 인해 신속한 자금조달이 어려우며, 이로 인해 영세 소상공인의 사업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실제로 총 3개의 업체에서 보증지급을 제공받기 전에 사고가 발생했고 이를 제외한 11개의 업체에서 두 달 이내에 사고가 발생함

- 이는 지원금을 제공받기까지, 특히 대상자 선정 이후 보증지급까지, 그리고 보증지급 이후 대출금 제공까지의 단계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으로 추정됨

[표 3-8] 보증취급일 이후 두 달 이내 폐업한 업체

업체명	지원금 종류	보증취급일	사고발생일자	사고발생일 -보증취급일
H모 업체	창업자금	2013-01-03	2012-11-23	-41
D모 업체	창업자금	2014-09-15	2014-08-15	-31
T모 업체	경영개선자금	2014-10-31	2014-12-11	41
C모 업체	창업자금	2015-03-02	2015-04-06	35
N모 업체	경영개선자금	2015-07-06	2015-06-30	-6
S모 업체	창업자금	2015-07-20	2015-08-12	23
S모 업체 ^{*)}	창업자금	2015-11-30	2015-12-21	21
Y모 업체	경영개선자금	2015-12-15	2016-02-03	50
W모 업체	창업자금	2016-09-21	2016-11-15	55
W모 업체	창업자금	2016-12-07	2017-01-15	39
L모 업체	창업자금	2016-12-16	2017-01-15	30
T모 업체	창업자금	2017-06-30	2017-08-11	42
J모 업체	창업자금	2017-11-02	2017-11-27	25
J모 업체	경영개선자금	2017-11-09	2017-11-30	21

^{*)} 몇몇 업체는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폐업이며, 한 업체는 기존 지원금에 대한 상환을 완료한 뒤 새로 대출받고 폐업한 경우임

- 상환기간의 경직성
 - 성수기와 비수기가 뚜렷한 업종의 사업주는 매달 상환이 어려움
 - 상환기간의 유예 등 제도적 유연성 도입이 필요함
- 민간위탁 수행기관의 이듬해 예산 규모 확정시기 지체
 - 연말이 되어야 예산규모가 확정되기 때문에 예산의 계획적 배분이 불가능함
 - 수행인력 인건비 등 일부 주요예산은 앞당겨 확정하는 방안이 필요함

3) 수혜대상자 선정 과정 관련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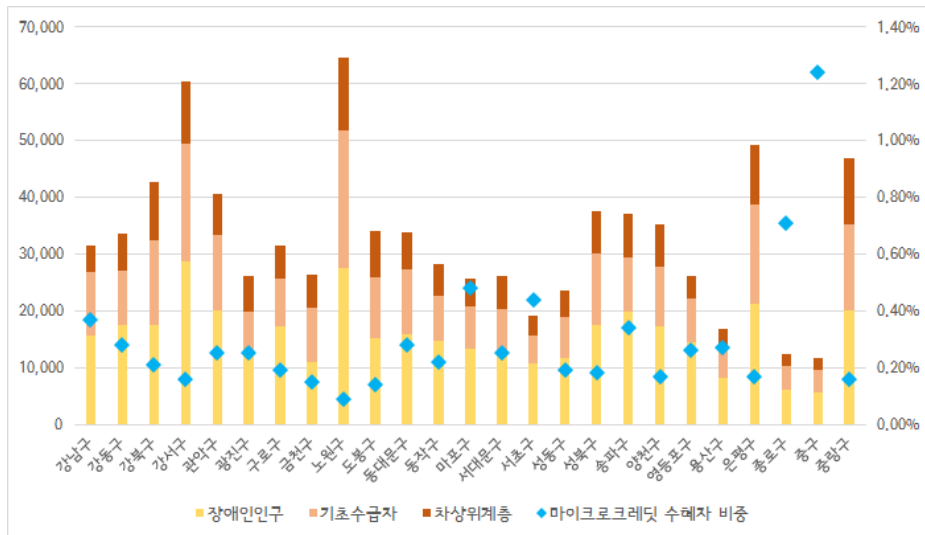
- 수혜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지표의 다각화 필요
 - 정성적인 지표(자활 의지, 품성 등) 활용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해외에서는 대상자의 인성정보를 테스트 및 인적 기록(교통법규 준수, 납세 의무 성실 이행 등) 검토를 통해 수렴함
- 대상자 발굴의 어려움
 - 홍보가 용이한 전통시장측은 이미 서민진흥금융원에서 배타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함
 -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의 경우 지역사회, 직능단체 등과 연계 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함
- 민간위탁 수행기관의 지역적 편중
 - 6개 수행기관 중 4개 기관이 종로구, 중구 등지에 밀집해(나머지 2곳은 서대문구, 강남구에 위치) 홍보 동선이 겹침
 - [표 3-9]에 나타나있듯이 노원구는 ‘장애인’ 및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인구가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60명만(0.09%) 수혜를 받은 것에 비해 중구와 종로구는 각각 145명(1.24%), 88명(0.71%)이 수혜대상으로 선정되어 취약계층인구 대비 가장 높은 백분율을 보임

[표 3-9] 자치구별 장애인,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인구와 마이크로크레딧 수혜자 수

구분	장애인인구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소계	마이크로크레딧 수혜자	백분율
강남구	15,617	11,201	4,749	31,567	118	0.37%
강동구	17,413	9,656	6,559	33,628	93	0.28%
강북구	17,377	14,953	10,257	42,587	88	0.21%
강서구	28,717	20,765	10,878	60,360	99	0.16%
관악구	20,103	13,192	7,303	40,598	103	0.25%
광진구	12,514	7,411	6,240	26,165	66	0.25%
구로구	17,289	8,463	5,701	31,453	60	0.19%
금천구	11,059	9,454	5,878	26,391	39	0.15%
노원구	27,436	24,224	12,843	64,503	60	0.09%
도봉구	15,196	10,625	8,287	34,108	49	0.14%
동대문구	15,893	11,300	6,531	33,724	95	0.28%
동작구	14,590	8,004	5,646	28,240	61	0.22%
마포구	13,250	7,444	5,037	25,731	123	0.48%
서대문구	12,644	7,719	5,763	26,126	65	0.25%
서초구	10,774	4,873	3,576	19,223	85	0.44%
성동구	11,770	7,003	4,727	23,500	45	0.19%
성북구	17,529	12,434	7,627	37,590	67	0.18%
송파구	19,790	9,594	7,710	37,094	125	0.34%
양천구	17,232	10,419	7,520	35,171	60	0.17%
영등포구	14,351	7,833	3,897	26,081	67	0.26%
용산구	8,116	5,940	2,739	16,795	46	0.27%
은평구	21,301	17,350	10,581	49,232	84	0.17%
종로구	6,064	4,296	2,116	12,476	88	0.71%
중구	5,694	3,966	2,032	11,692	145	1.24%
중랑구	20,034	15,228	11,689	46,951	77	0.16%
총합계	391,753	263,347	165,886	820,986	2,008	0.24%

자료: 통계청 웹사이트 및 서울 열린데이터광장 재구성(검색일자: 2018.09.01.)

- 이는 대부분의 민간위탁 수행기관이 중구 및 종로구 일대에 편재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됨
- 이에 따라 다양한 지역의 수혜대상자를 확보할 수 있는 홍보 및 발굴 방안 검토가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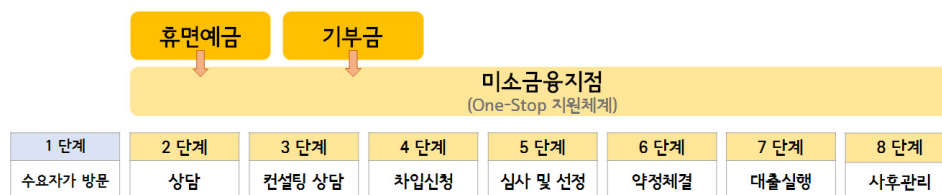


[그림 3-7] 자치구별 장애인,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인원과 마이크로크레딧 수혜자 수

4 유사 사업 현황

1) 미소금융 (서민금융진흥원)

- 사업 추진체계 및 개요



[그림 3-8] 미소금융사업 추진체계

- 미소금융은 정부가 계획을 수립하고 금융기관의 휴면예금과 재계·금융기관의 기부금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며, 미소금융중앙재단, 지역재단, 민간 미소금융재단(기업, 은행)의 3축으로 운영됨 (한국금융연구원, 2016)
- 재원은 2008년 3월에서 2013년 4월의 기간 동안 휴면예금 약 7,833억 원과 기부금 약 9,587억 원을 포함한 총 1조 7,420억 원이 확보됨 (그 중 4,000억 원의 기업지정기부금, 2,200억 원의 은행 지정기부금은 LG, SK, 롯데, 삼성, 포스코, 현대차 등 6개 기업재단과 국민, IBK, 신한, 우리, 하나 등 5개 은행재단이 중앙재단으로부터 재출연 받아 대출사업을 운영하고 나머지 재원은 미소금융중앙재단에서 관리함 (금융위원회, 2018)
- 대출 전에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3일 이내의 컨설팅 서비스가 제공되며 이용자는 5만원 이내의 컨설팅 비용을 지불해야 함
- 컨설턴트가 보고서를 통해 수혜업자의 경영환경과 사업자 분석의견을 제시하면 지점에서 적격심사를 진행하고, 자활의지를 감안해 대출을 심사함
- 창업자금 수혜자의 경우 12시간의 필수 사전교육(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온라인/오프라인 교육 제공)을 이수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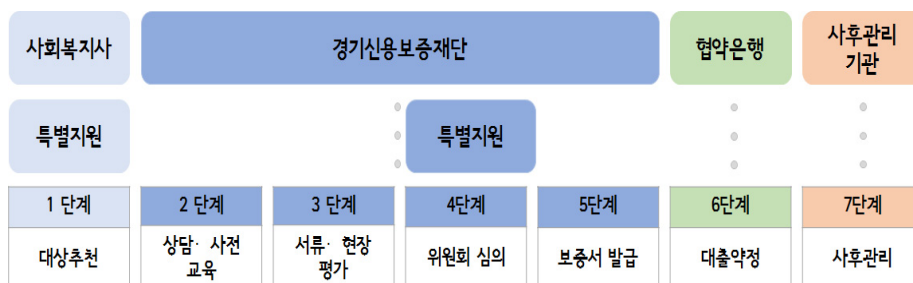
[표 3-10] 미소금융 사업개요

구분	내용
지원 대상	신용등급 6~10등급 (무등급 포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자
지원한도	창업지원금: 7,000만원 이내 경영개선지원금: 2,000만원 이내 시설개선지원금: 2,000만원 이내 긴급생계자금: 1,000만원 이내
금리	4.5%
대출기간	최대 6년 (1년 거치, 5년 내 상환)
지원 실적	2.6조원 (2008년 ~ 2017년)

- 미소금융은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미소금융 수혜자의 자활을 성공적으로 돕기 위해 2010년부터 미소희망봉사단을 시작했으며, 이는 전문지식, 일손지원, 재능 나눔 등의 형태로 구성됨

2) 경기 굿모닝론 (경기신용보증재단)

o 사업 추진체계



[그림 3-9] 굿모닝론 사업 추진체계

- 경기도는 사업총괄 및 예산지원을 담당하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상담, 심사, 보증서 발급, 이차보전금, 및페이백 지급까지 담당하며, 수행기관은 사

후관리만을 담당함

- 사업예산은 2018년 기준 보증재원 19.6억 원, 이차보전금 2.94억 원, 페이백 2.4억 원, 기타운영비 0.06억 원으로 합계 25억 원임

○ 사업 개요

[표 3-11] 굿모닝론 사업개요

구분	내용
지원 대상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인 소상공인 중 금융 소외자 ^{*)} 또는 사회적 약자 ^{**)} 또는 특별 지원 자금 대상자 ^{***)}
지원규모	196억 원 (2018년 연지원금)
지원한도	창업지원금: 3,000만원 이내 경영개선지원금: 2,000만원 이내 특별지원금: 5,000만원 이내
금리	2.99% (경기도 0.5% 이차보전)
대출기간	거치기간 없이 60개월 (창업지원금은 3개월 거치 57개월)
특이사항	페이백제도 (굿모닝론 전액 상환자 대상으로 전액상환까지 총 부담한 정상이자의 일부를 환급)

- 대출 금리는 사업시행연도인 2015년 1.84%(은행산출 금리 3.34%, 이차보전금리 1.5%)에서 2018년 2.99%(은행산출금리 3.49%, 이차보전금리 0.5%)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음
- 경기 굿모닝론은 전액 상환자 모두에게 페이백 형태로 인센티브를 지급함 (총 부담한 정상이자의 일부(20%)를 계산하여 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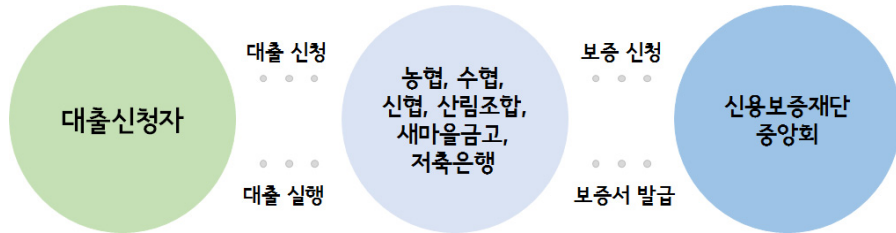
^{*)} 연소득이 43백만 원 신용 6등급 이하

^{**)} 50대 가장(은퇴자, 실직자),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다동이가정, 북한이탈주민,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 경기도내 사회복지사(시·군 사회복지공무원)가 굿모닝론 지원이 필요하다고 추천하는 자로 내부 평가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자

3) 햇살론 (서울신용보증재단)

○ 사업 추진체계



[그림 3-10] 햇살론 사업 추진체계

○ 사업개요

[표 3-12] 햇살론 사업개요

구분	내용	
지원 대상	신용등급이 6~10 등급 또는 연소득 3천5백만 원 무등록·무점포 자영업자 및 일용직·임시직 근로자, 농림어업인	
지원규모	7.1조원 ('10~'15년)	
지원한도	창업자금: 5,000만원 이내 운영자금: 2,000만원 이내 대환자금: 5,000만원 이내*) 생계자금: 1,500만원 이내, 긴급생계자금: 500만원 이내	
금리**)	사업자	6.89% (상호금융) 8.44% (저축은행)
	근로자	7.57% (상호금융) 9.42% (저축은행)
대출기간	창업, 운영자금: 5년 (1년 거치, 4년 이내 원금균등분할 상환) 대환자금: 거치기간 없이 5년 이내에서 연 단위로 채무자가 정하는 기간 동안 원금균등분할상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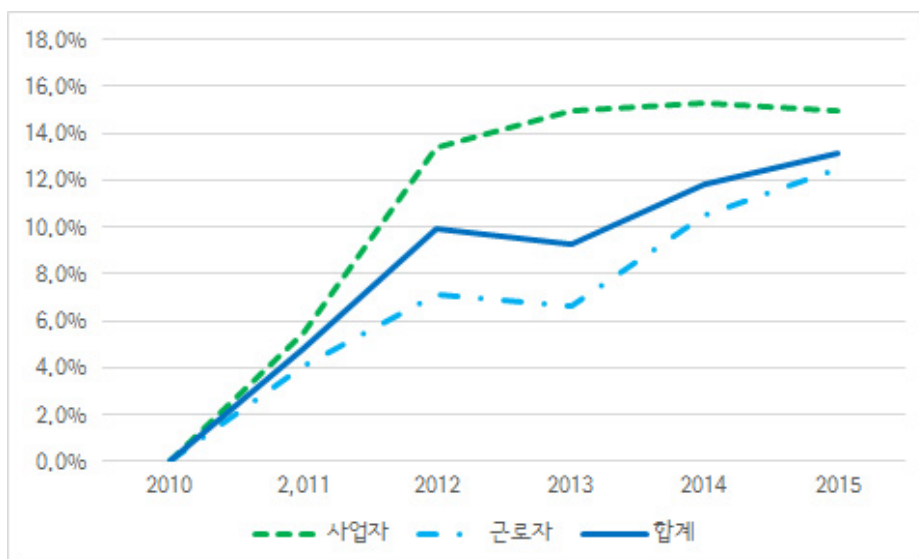
- 햇살론은 6년 동안 상호금융이 약 8천억 원을, 저축은행이 약 2천억 원을 출연하고 중앙정부(복권기금)가 약 6천억 원을, 지방자치단체가 약 4천억 원

*) 햇살론 신청자격을 만족하는 근로자, 자영업자, 농림어업인(성실상환자 제외)

**) 금리는 조달금리(1년 만기 정기예금)에 따라 변동가능

의 재정을 지원하였음

- 창업자금 수혜자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12시간 이상의 창업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을 수행하는 위탁기관으로는 성공창업패키지(소상공인진흥원), 기술창업학교(창업진흥원), 창업교육(근로복지공단)이 있음
- 햇살론은 2015년 말 기준, 금액기준 대위변제율이 13.2%로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대위변제율인 13.8% 보다 다소 낮지만 근로자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자 지원금의 대위변제율만 계산하면 오히려 햇살론의 대위변제율이 15.1%로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사업보다 높게 산출됨



자료: 신용보증재단중앙회(2016)

[그림 3-11] 햇살론 지원대상자별 대위변제 추세

[표 3-13] 햇살론 지원대상자별 대위변제 추세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사업자	0.1%	5.5%	13.4%	15.0%	15.3%	15.0%
근로자	0.0%	4.1%	7.1%	6.7%	10.5%	12.5%
합계	0.0%	4.8%	9.9%	9.3%	11.8%	13.2%

04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전체성과 분석

- 1_성과평가 방법
- 2_사업 전체성과 평가 결과
- 3_폐업 및 대위변제 분석

04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전체성과 분석

1_성과평가 방법

1) 지표 체계

(1)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가치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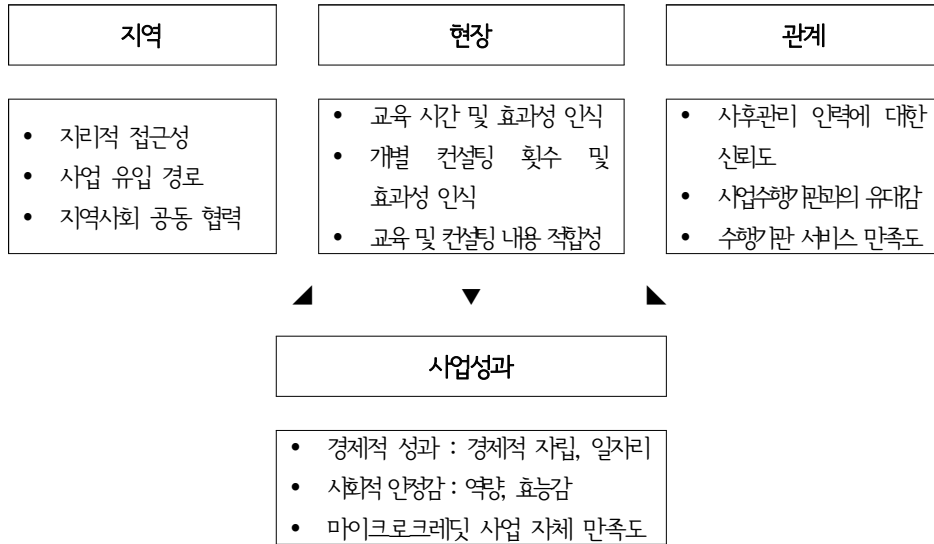


[그림 4-1]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가치 체계

- 지역(Region) + 현장(Reality) + 관계(Relationship)의 유기적 결합 통해 사업효과 제고 가능
 - 지역 기반 : 영세 자영업자의 사업기반은 지역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지역 사회와의 협력이 필수 요건임
 - 현장 중심 : 영세 자영업자는 사업 생존에 취약한 여건이어서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컨설팅과 사후관리가 요구됨
 - 관계 강화 : 사후관리 과정에서 해당 전문 인력에 대한 신뢰도 및 유대감 형성이 사업효과성에 영향을 미침

- 사업추진을 통한 핵심 성과는 경제적 측면과 사회적 안정감으로 요약

(2)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성과평가 체계



[그림 4-2]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성과평가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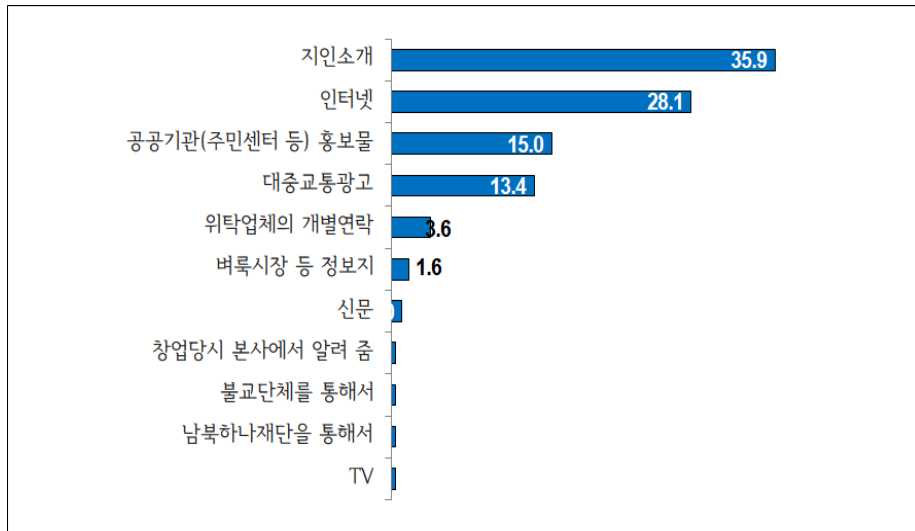
(3) 설문조사 및 자료수집

- 설문조사
 - 조사대상 :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수혜자 (2012년 3월 ~ 2017년 12월 선정 수혜자)
 - 총 표본 : 306명
 - 설문조사 방법 : 리스트를 통한 사전 연락 후 1:1 개별 방문면접 조사 실시
 - 조사기간 : 2018년 6월 12일 ~ 7월 6일 (약 3주)
 - 조사수행 기관 : 포인트맥리서치(주)
- 기타 자료수집 : 6개 기관 개별 자료 취합 후 합산 (2012년 3월 ~ 2017년 12월 대상)

2_ 사업 전체 성과평가 결과

(1)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은 지역에 밀착된 서비스를 제공하였나?

- 사업수행기관과 사업수혜자 간 지리적 접근성 : 평균 왕복거리 약 18.4km
-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의 유입 경로는 지인소개가 35.9%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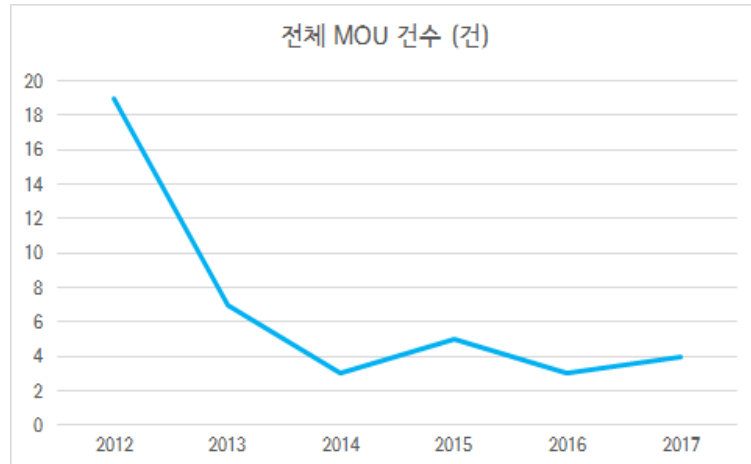


(n=30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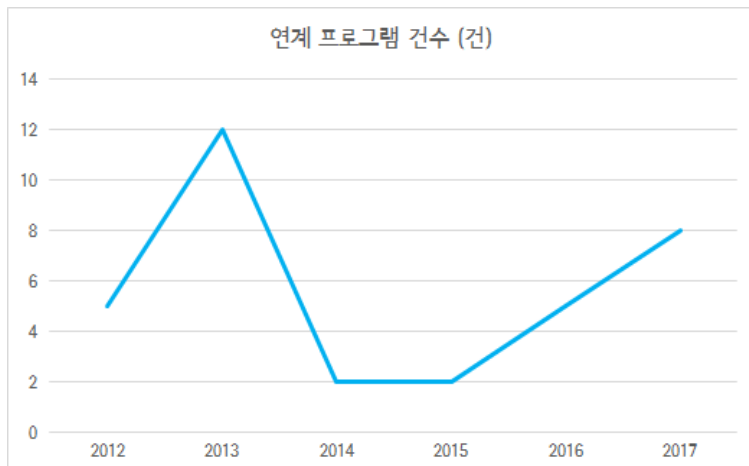
[그림 4-3]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유입경로

- 민간위탁 수행기관의 개별 연락이나 개별 홍보를 통한 유입은 5.2%에 그쳐 지역에 기반한 사업자 발굴 측면에서는 본연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음
- 수행기관별로 유입 경로를 살펴보면 ‘B기관’, ‘D기관’, ‘F기관’은 지인소개가 가장 많았고, ‘A기관’, ‘C기관’, ‘E기관’은 인터넷을 통한 유입이 가장 많았음

○ 지역사회 타 기관과 MOU 및 연계 프로그램 운영 실적



[그림 4-4] 전체 MOU건수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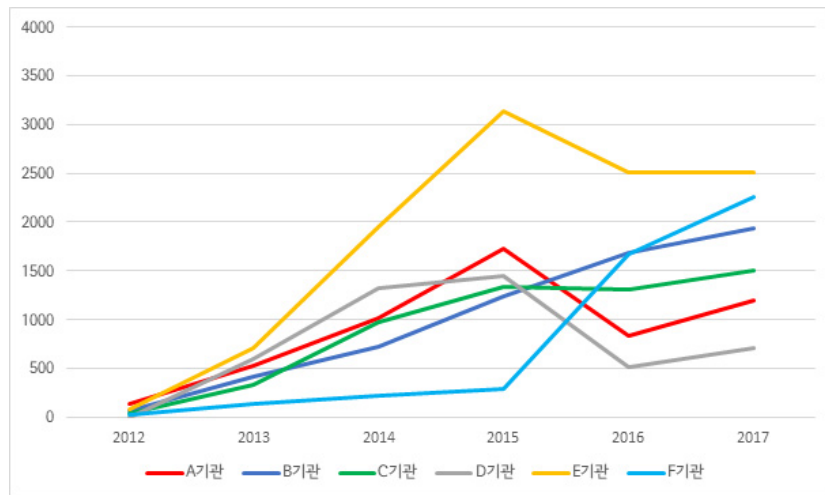
[그림 4-5] 연계 프로그램 건수 (건)

- 지역사회와의 연계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MOU 체결 건수와 지역사회 타 기관과의 연계 프로그램 건수를 평가한 결과 2017년 말까지 총 41건의 MOU가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사업과 관련하여 체결되었으며, 연계 프로그램 건수는 총 34건에 해당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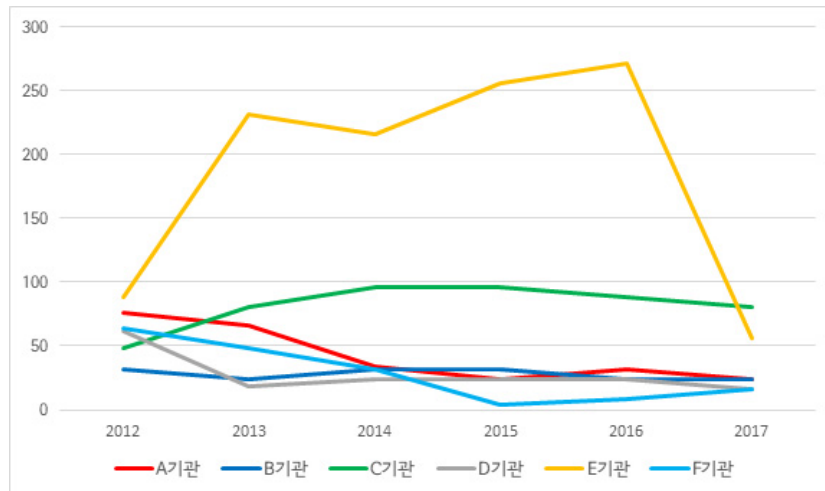
- 이는 1년 평균 1~2건의 실적에 해당되며,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뿌리내린 미소금융과 비교할 때, 현 단계에서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이 지역사회와 밀착되어 뿌리내렸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움

(2)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은 현장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였나?

- 개별 컨설팅 및 창업/경영 교육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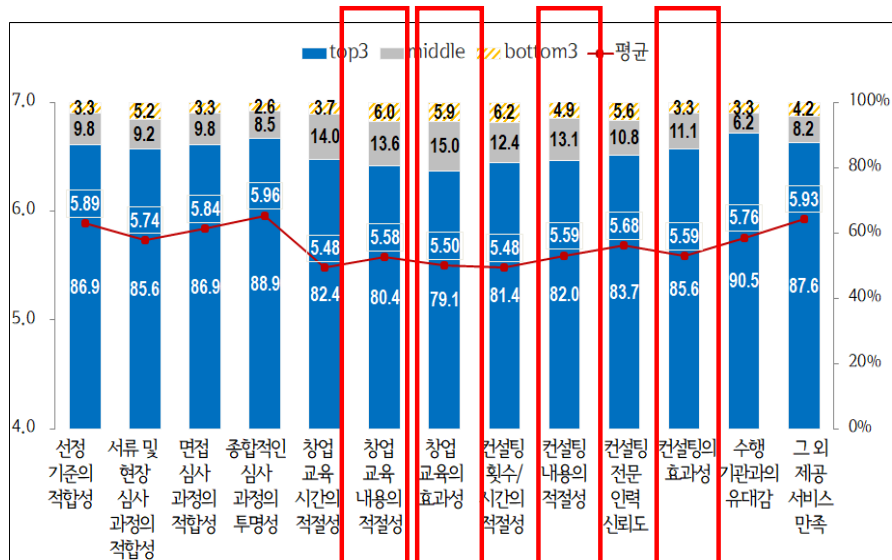
[그림 4-6] 수행기관별 연간 개별 컨설팅 횟수 (건)



[그림 4-7] 수행기관별 연간 창업교육 시간 (시간)

- 2012년 이후부터 2017년까지 사업기간 동안 총 37,000여 회의 개별 컨설팅이 시행되었으며, 6개 수행기관을 통해 연평균 6,165회 정도의 컨설팅이 이루어짐
- 창업 등 1인당 교육시간은 연평균 65.9시간가량 시행되었으며, 타기관의 경우 2017년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 이후 해당 실적이 대폭 하락함

○ 개별 컨설팅 및 교육의 적절성 및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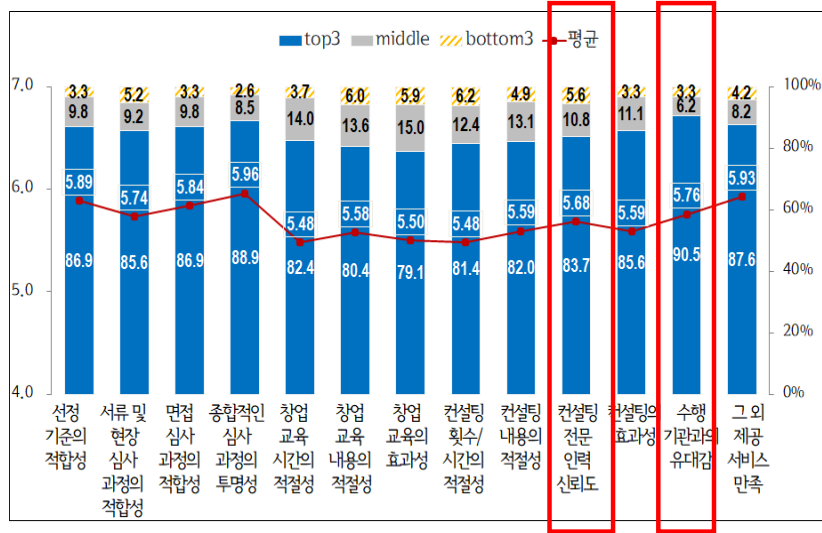
(n=306, %)

[그림 4-8] 사후관리 효과성에 대한 인식

- 개별 컨설팅 및 창업교육 내용의 적절성과 효과성에 대한 인식은 타 문항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특히 창업교육 내용의 적절성은 7점 만점 기준으로 5.58점, 창업교육의 효과성은 5.50으로 나타나 인식도 문항 중 가장 낮은 편에 속하였고 향후 업종별 맞춤형 교육 등 다변화된 교육이 필요함을 보여줌

(3)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은 사업수행기관-수혜자 간 관계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였나?

○ 사업수행기관과 사업수혜자 간 유대감 및 신뢰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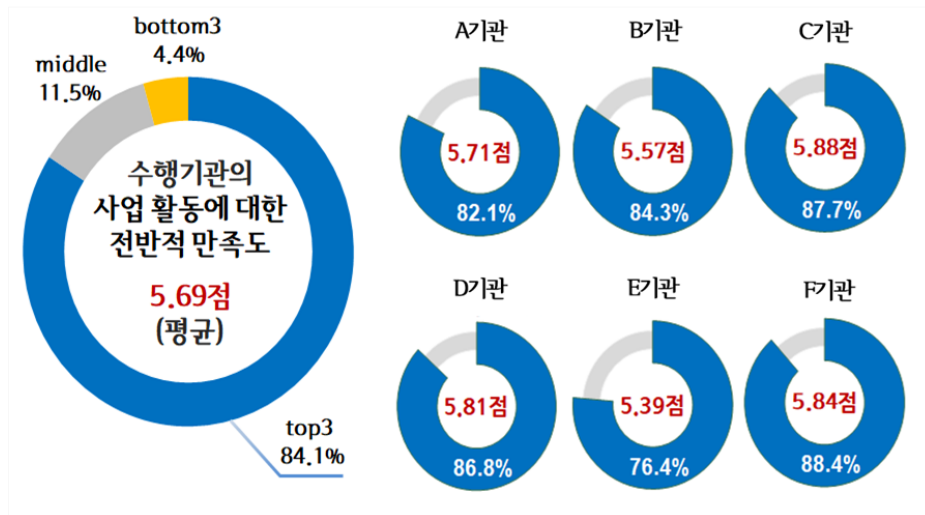


(n=306, %)

[그림 4-9] 수행기관 및 사후관리 인력과의 유대감 및 신뢰도

- 민간위탁 수행기관과 사업수혜자 간의 유대감은 5.76점으로 타 문항 대비 평균 수준에 해당되었으나,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90.5%에 해당되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음
- 반면, 민간위탁 수행기관의 컨설팅 및 사후관리 인력에 대한 신뢰도는 5.68점으로 평균 수준에 속함

○ 사업수행기관 서비스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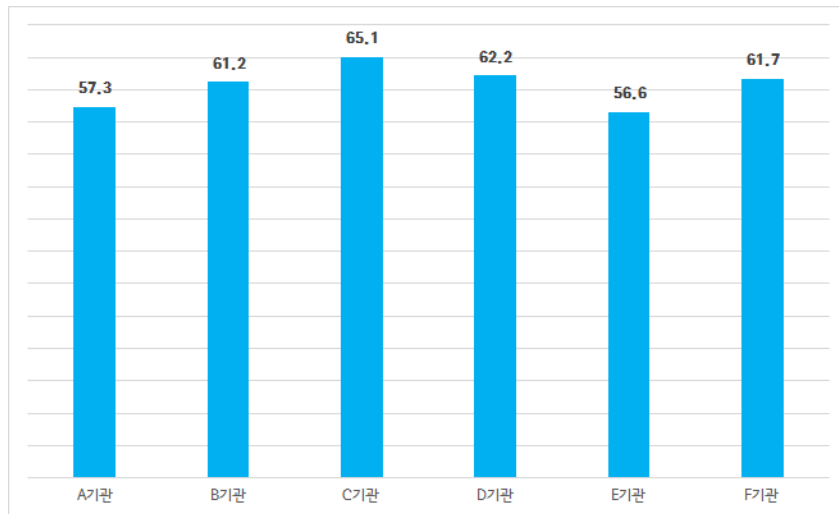
[그림 4-10] 수행기관의 사업 활동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수행기관의 사업 활동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7점 만점 기준 평균 5.69점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자체 만족도 6.04점 보다 -0.35% 낮은 평가임
- 수행기관별 사업 활동 만족도는 'C기관' 가입자의 만족도가 5.88점으로 가장 높았고, 'E기관' 가입자의 만족도가 5.39점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4)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의 경제적 성과 종합

① 경제적 자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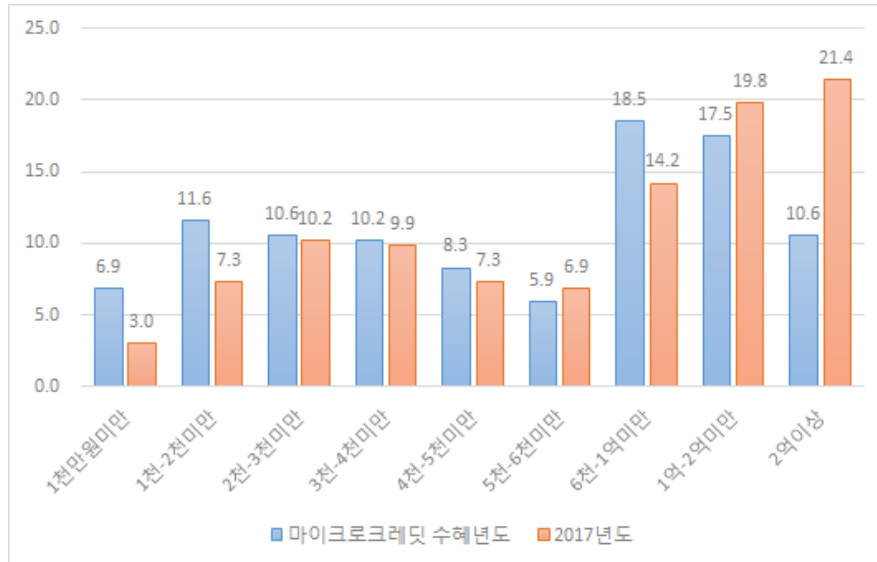
○ 생존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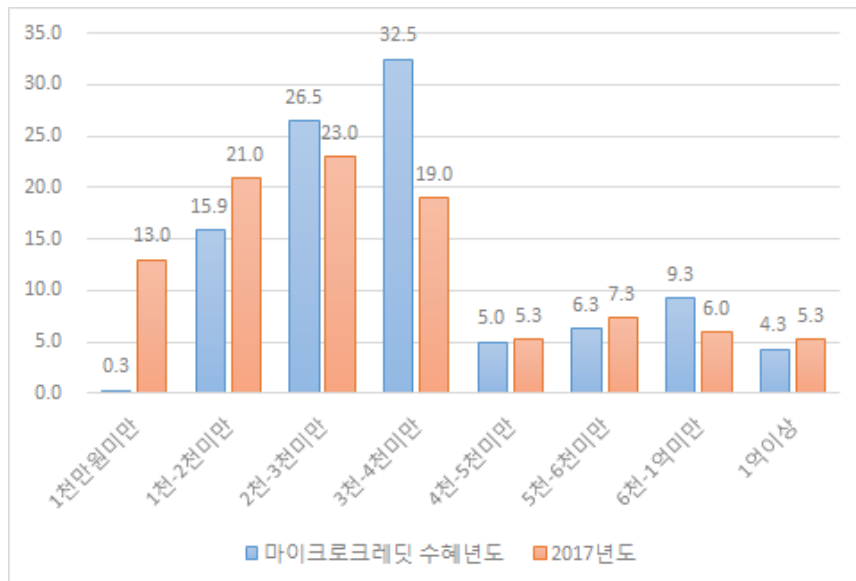
[그림 4-11] 수행기관별 관리업체 생존율

-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의 가장 근본적인 경제적 성과는 자립을 측정할 수 있는 생존율이며, 사업기간동안 전체 평균 약 60.4%의 생존율을 나타냄
- 민간위탁 수행기관별로 살펴보면, C기관이 65.1%로 가장 높았고, D기관이 62.2%, B기관이 61.2%, F기관이 61.7%, A기관이 57.3%, E기관이 56.6%의 생존율을 보였음

○ 매출액 및 부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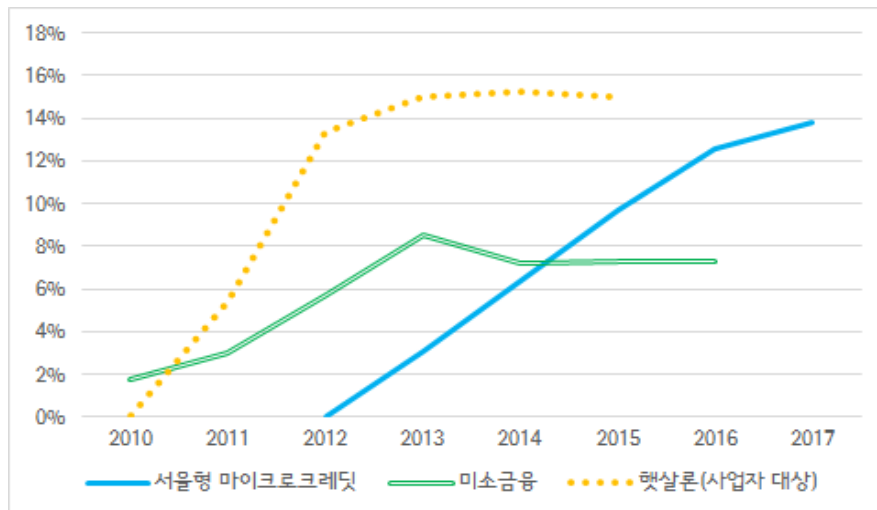
[그림 4-12] 마이크로크레딧 수혜년도와 2017년도의 매출액 변화



[그림 4-13] 마이크로크레딧 수혜년도와 2017년도 부채 비교

- 마이크로크레딧 수혜년도의 연매출액과 2017년도 매출액 변화를 살펴보면, 마이크로크레딧 수혜년도에는 가입자 중 47.5%로 5천만 원 미만이었으나, 2017년에는 5천만 원 미만인 가입자가 37.5%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평균값으로 보면,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수혜년도 연 매출액은 8천8백만 원 수준이다가 2017년에는 연 매출액이 1억3천만 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마이크로크레딧 수혜년도에는 부채 총액이 3천만 원 가입자가 57.3%였으나, 2017년에는 43.0%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혜년도의 부채액 평균은 전체 가입자 기준 3천5백만 원 선이었으나, 2017년에는 3천1백만 원으로 약 10% 가량 감소함

○ 대위변제율



자료: 서울 신용보증재단 내부자료 재구성

[그림 4-14]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미소금융, 햇살론의 누적 대위변제율(금액기준) 비교

-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사업과 유사한 ‘미소금융’, ‘햇살론’의 대위변제율을 분석한 결과, 사업 년차가 지날수록 누적 대위변제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사업 시작 4-5년차 이후에는 대위변제 증가율이 확연히 둔화되거나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냄

- 심사과정의 강화, 이자율 상향등의 개선안이 대위변제율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
-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은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으며, 타 사업과 누적 연수로 비교할 때 다소 높은 수준에 해당됨

○ 기초생활수급 탈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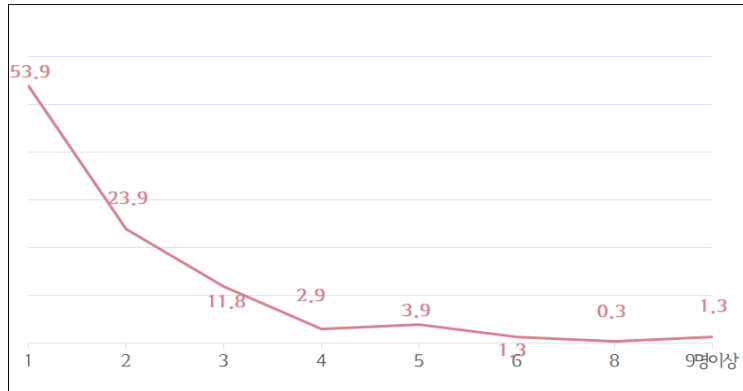
[표 4-1] 수급탈피 업체

업체명	자금종류	관리 기관	보증취급일	수급탈피연월
이ㅇㅇㅇㅇ	창업자금	C기관	2012-09-11	2018-01
쌍ㅇㅇㅇㅇ	경영개선자금	B기관	2013-07-15	2014-06
파ㅇㅇㅇㅇ	경영개선자금	B기관	2013-09-12	2014
삼ㅇㅇㅇㅇ	경영개선자금	B기관	2013-12-18	미상
중ㅇㅇㅇㅇ	창업자금	B기관	2015-07-22	2016-05
가ㅇㅇㅇㅇ	창업자금	B기관	2016-02-18	2016-07
기ㅇㅇㅇㅇ	창업자금	A기관	2016-05-11	2017-01
연ㅇㅇㅇㅇ	경영개선자금	C기관	2016-06-01	2018-07
후ㅇㅇㅇㅇ	창업자금	C기관	2017-02-15	2017-11
연ㅇㅇㅇㅇ	경영개선자금	A기관	2017-04-05	2018-05
커ㅇㅇㅇㅇ	창업자금	E기관	2017-05-12	2017-12
우ㅇㅇㅇㅇ	창업자금	A기관	2017-08-14	2018-01
신ㅇㅇㅇㅇ	창업자금	D기관	2017-12-22	2018-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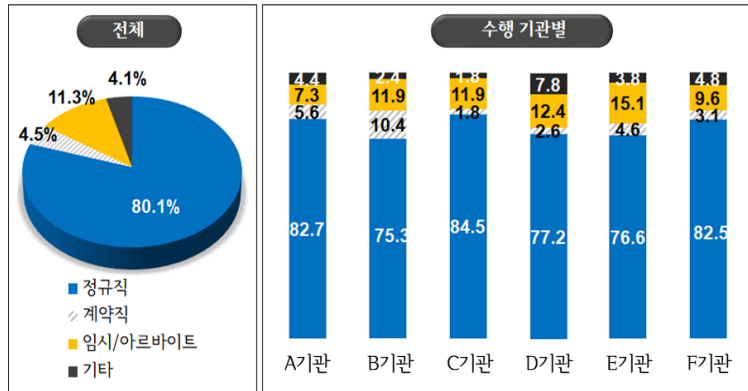
- 수급탈피여부는 각 수행기관이 해당 관리업체들을 조사한 것으로, 210명(추정)의 수급대상자 중 13명이 수급탈피에 성공한 것으로 집계됨(연락이 되지 않는 업체를 포함하면 수급탈피에 성공한 영세소상공인은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

② 일자리 창출

- 고용근로자 수, 고용형태



[그림 4-15] 마이크로크레딧 수혜업체의 고용근로자 수



[그림 4-16] 마이크로크레딧 수혜업체 고용근로자의 고용 형태

- 본인을 포함한 총 고용 근로자수는 1인 사업체인 경우가 53.9%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1-2명의 직원을 고용한 사업체가 35.7%를 차지하고 있어, 1-2인 소규모로 운영되는 소상공인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본인을 포함한 총 고용 근로자수의 평균은 약 2.28명이며, 전체 지원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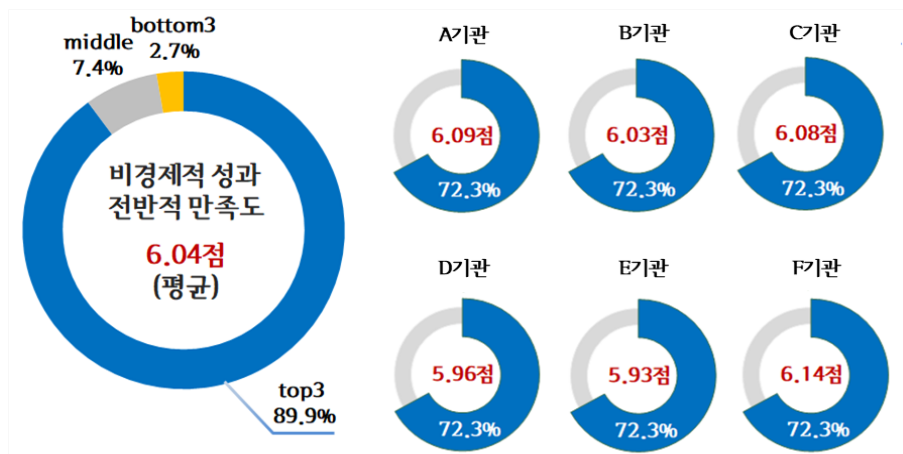
으로 확대할 경우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으로 인한 고용 효과는 약 4,590명으로 추정됨

- 본인을 포함한 전체 근로자의 고용형태는 정규직이 80.1%로 절대적으로 높으며, 계약직 직원 보다는 임시/아르바이트의 고용 비중이 11.9%로 높아 임시직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임

(5)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의 비경제적 성과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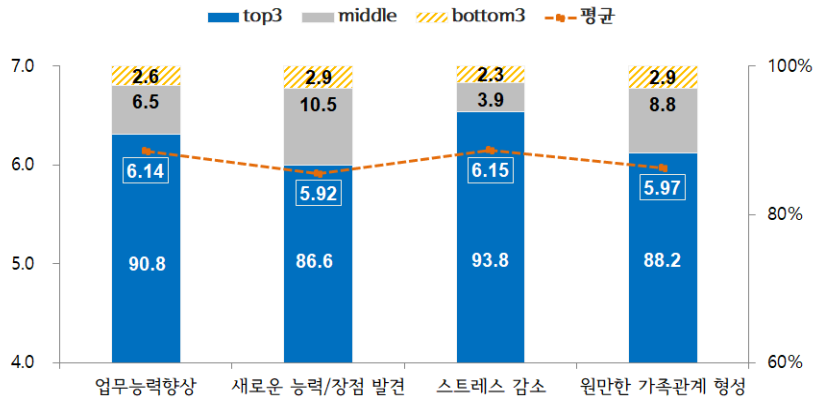
① 사회적 안정감

- 업무능력 인식 변화, 스트레스 수준 변화, 자기 효능감 인식 변화



[그림 4-17] 사업전체 및 수행기관별 사회적 안정감

-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의 비경제적 성과에 대한 전반적 인식은 7점 만점 기준 평균 6.04점으로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수행기관별 인식도는 전체적으로 유사한 편이고, 'F기관' 가입자의 인식도가 6.14점으로 가장 높았고, 'E기관' 가입자의 인식도가 5.93점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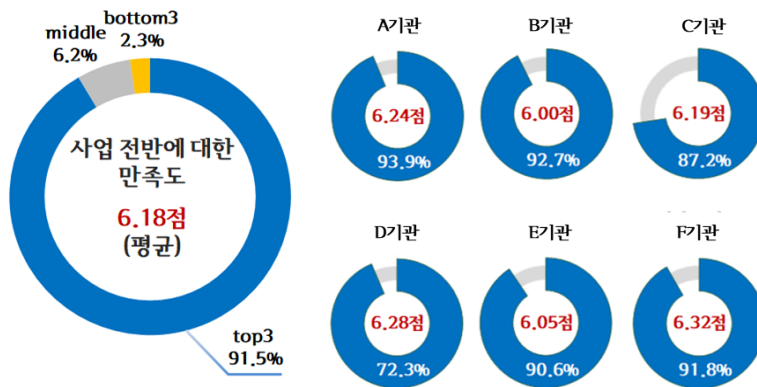


[그림 4-18] 사회적 안정감 세부 항목

-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의 비경제적 성과에 대한 세부 항목 만족도는 ‘스트레스 감소’가 7점 만점 기준 평균 6.15점으로 가장 높았고, ‘업무능력향상’ 6.14점, 상대적으로 ‘자기 효능감 인식’은 5.92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6)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자체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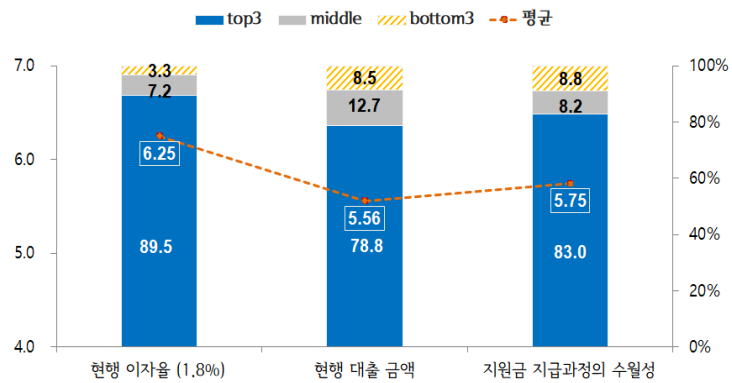
○ 사업 전반에 대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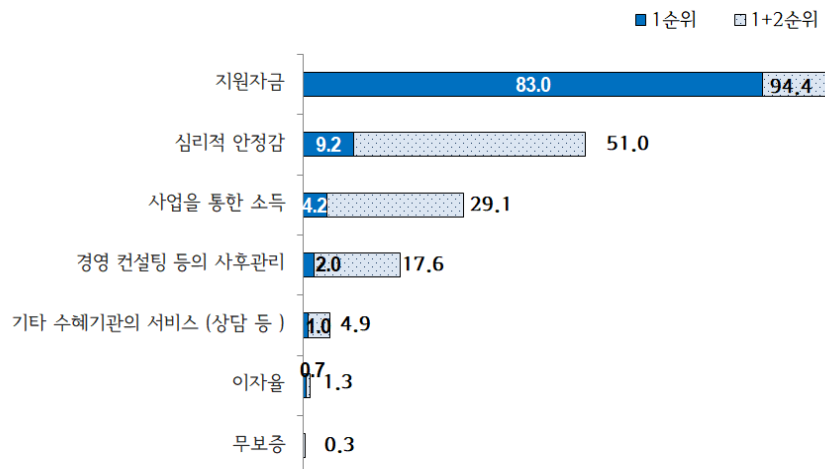
[그림 4-19] 수행기관별 사업전반에 대한 만족도

-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전반에 만족도는 7점 만점 기준 평균 6.18점으로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수행기관별 전반적 만족도는 전체적으로 유사한 수준으로 높게 평가되었고, 'F기관' 가입자의 만족도가 6.32점으로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B기관' 가입자의 만족도가 6.00점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운영 관련 만족도 및 사업 효과



[그림 4-20] 운영관련 만족도



[그림 4-21] 운영 관련 효과성 인식

-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운영 관련 만족도는 '현행 이자율(1.8%)'에 대한 만족도가 7점 만점 기준 평균 6.25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지원금 지급과정의 수월성' 5.75점 순이며, 상대적으로 '현행 대출금액'이 5.56점으로 가장 낮게 평가됨
-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의 가장 큰 장점/효과는 1순위 기준 '지원 자금'이 83.0%로 가장 높은 비중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심리적 안정감' 9.2%, '사업을 통한 소득' 4.2%순으로 평가됨
- 상대적으로 '경영 컨설팅 등의 사후관리' 2.0%, 기타 수혜기관의 서비스 (상담 등)는 1.0% 수준으로 가입자 전반에게 수행기관의 관리 및 컨설팅의 효과가 장점으로 평가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수혜자의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에 대한 건의사항

- 해당 건의사항은 설문조사에서 주관식 문항으로 질의했으며, 가장 높은 비율인 14.5%가 대출금액의 상향조정을 요구했고, 3.9%가 절차의 복잡성('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복잡하다')에 대해 의견을 표시했고, 3.0%가 추가 자금 대출에 대한 건의를 했음

[표 4-2]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수혜자 건의사항

내용	응답자비율 (%)
대출금액이 상향 조정되었으면 좋겠다	14.5
준비해야하는 서류가 복잡하다	3.9
추가자금 대출이 가능했으면 좋겠다	3.0
많은 사람들이 제도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하다	2.1
원금 상환기간을 연장해주면 좋겠다	1.5
대출 이자율 인하 요망	1.5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경영 컨설팅을 해줬으면 좋겠다	1.5
향후에도 서민들을 위한 상품이 많아져서 부담을 줄여주면 좋겠다	1.5
대출 받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1.2
대출 심사기준이 까다롭다	1.2
원금상환 1년 거치기간을 연장해주면 좋겠다	1.2
대출절차가 너무 복잡하다	.9
관리방법이 꼭 방문이어야 하는 지 업무에 방해되는 경우가 있다	.9
경영 컨설팅의 사후관리는 유선전화로 해주면 좋겠다	.6
대출기간이 연장되면 좋겠다	.3
대출금이 개업과 동시에 지급되면 좋겠다	.3
무이자 대출요망	.3
창업, 경영개선 지원자금을 별도로 대출요망	.3
처음 평가과정이 너무 까다롭다	.3
가입절차 기간이 길다	.3
지원금 지급과정이 수월하면 좋겠다	.3
온라인 교육 후 수수료 증 제출해야하는 점은 불합리하다	.3
만기 후 재대출 요망	.3
대출 후에도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	.3
경영 컨설팅 시 사업체를 경영해 본 경험자가 실질적인 도움을 주면 좋겠다	.3

3_폐업*) 및 대위변제 분석

1) 업종별 분석

[표 4-3] 업종별 폐업 및 대위변제

대분류업종명	전체 업체 수	폐업 업체수	폐업률(%)	대위변제 건수	대위변제율 (건수, %)
건설업	34	8	23.5	3	8.8
교육 서비스업	113	47	41.6	16	14.2
금융 및 보험업	1	1	100.0	0	0.0
도매 및 소매업	697	288	41.3	138	19.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3	4	30.8	0	0.0
부동산업	47	10	21.3	2	4.3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34	8	23.5	4	11.8
숙박 및 음식점업	520	241	46.2	100	19.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62	29	46.8	14	22.6
운수 및 창고업	51	10	19.6	5	9.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52	15	28.8	3	5.8
정보통신업	52	19	36.5	10	19.2
제조업	125	44	35.2	21	16.8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 인 서비스업	213	74	34.7	24	11.3
총합계	2,014	798	39.6	340	16.9

○ 폐업

- 보증지급을 제공받은 2,014개 업체 중 폐업한 업체는 798개로 전체 폐업률은 39.6%에 달함
- 사례 수가 하나 뿐인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하면 가장 높은 폐업률을 보

*) 대출금을 완납하고 재대출을 지원받은 후 폐업한 15개 중복업체의 폐업은 별도 업체의 폐업으로 상정하고 계산했기 때문에 실제 결과와 다소 오차가 있음

이는 업종은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으로 46.8%를 차지하고 있고, 근소한 차이로 ‘숙박 및 음식점업’이 46.2%로 두 번째로 높은 폐업률을 보이고 있음

- 그 외에도 ‘교육 서비스업’이 41.6%, ‘도매 및 소매업’이 41.3%, 제조업이 35.2%의 높은 폐업률을 보임
- 가장 낮은 폐업률을 보이는 업종은 ‘운수 및 창고업(19.6%)’이며 부동산업(21.3%)과 건설업(23.5%)도 낮은 폐업률을 보임

○ 대위변제

- 보증지급을 제공받은 2,014개 업체 중 대위변제가 발생한 업체는 340개 업체로 전체 대위변제율(건수 기준)은 16.9%를 차지함
- 가장 높은 대위변제율을 보이는 업종은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으로 22.6%를 기록하고 있으며, ‘도매 및 소매업’은 19.8%, ‘숙박 및 음식점업’과 ‘정보통신업’은 19.2%로 이들 역시 높은 대위변제율을 보이고 있음
- 가장 낮은 대위변제율을 보이는 업종은 사례가 하나 뿐인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하면 ‘부동산업’과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임

2) 지역별 분석

○ 지역별 폐업률

- 가장 높은 폐업률을 보이는 자치구는 금천구, 송파구, 중랑구, 노원구, 그리고 서초구로 모두 48.0% 이상의 폐업률을 보임
- 가장 낮은 폐업률을 보이는 자치구는 광진구, 강북구, 종로구, 마포구, 구로구, 관악구 등으로 모두 37.0% 이하의 폐업률을 보임

[표 4-4] 지역별 폐업률

구분	폐업업체수 (건)	전체 업체수 (건)	폐업률 (%)
강남구	48	118	40.7
강동구	38	93	40.9
강북구	24	88	27.3
강서구	37	99	37.4
관악구	37	103	35.9
광진구	20	66	30.3
구로구	20	60	33.3
금천구	22	39	56.4
기타	4	6	66.7
노원구	29	60	48.3
도봉구	22	49	44.9
동대문구	34	95	35.8
동작구	23	61	37.7
마포구	45	123	36.6
서대문구	26	65	40.0
서초구	41	85	48.2
성동구	19	45	42.2
성북구	25	67	37.3
송파구	62	125	49.6
양천구	24	60	40.0
영등포구	24	67	35.8
용산구	19	46	41.3
은평구	31	84	36.9
종로구	32	88	36.4
중구	57	145	39.3
중랑구	35	77	45.5
총 합계	798	2,014	39.6

3) 사고발생 시점

○ 폐업 발생 시점^{*)}

[표 4-5] 수행기관별 폐업 발생 시점

지원시점		1년이내	2년이내	3년이내	4년이내	5년이내	5년초과	총
전체	건	226	280	166	83	28	2	784
	%	28.8	35.7	21.1	10.6	3.6	0.3	100.0
A기관	건	34	52	28	15	7	0	136
	%	25.0	38.2	20.6	11.0	5.1	0.0	100.0
B기관	건	26	37	27	11	3	0	104
	%	25.0	35.6	26.0	10.6	2.9	0.0	100.0
C기관	건	26	35	17	5	9	2	92
	%	28.3	38.0	18.5	5.4	7.6	2.2	100.0
D기관	건	25	37	9	10	1	0	82
	%	30.5	45.1	11.0	12.2	1.2	0.0	100.0
E기관	건	43	60	49	22	8	0	182
	%	23.6	33.0	26.9	12.1	4.4	0.0	100.0
F기관	건	71	59	36	20	2	0	188
	%	35.0	29.1	17.7	9.9	1.0	0.0	100.0

- 업체가 가장 많이 폐업하는 시점은 '2년이내'로 전체 폐업의 35.7%를 차지하며, 그 다음은 '1년이내'가 많은 폐업률을 기록하여 지원 시점으로부터 2년 내에 약 65%의 업체가 폐업하는 것으로 나타남

^{*)} 폐업 일시가 미상인 업체는 제외했기 때문에 실제 데이터와는 다소 차이가 있음

○ 대위변제 발생 시점

[표 4-6] 수행기관별 대위변제 발생 시점

지원시점		1년 이내	2년 이내	3년 이내	4년 이내	5년 이내	5년 초과	총
전체	건	52	151	78	45	12	2	340
	%	15.3	44.4	22.9	13.2	3.5	0.6	100.0
A기관	건	9	28	22	6	2	0	67
	%	13.4	41.8	32.8	9.0	3.0	0.0	100.0
B기관	건	3	13	18	7	2	0	43
	%	7.0	30.2	41.9	16.3	4.7	0.0	100.0
C기관	건	7	15	6	6	2	2	38
	%	18.4	39.5	15.8	15.8	5.3	5.3	100.0
D기관	건	6	26	4	7	1	0	44
	%	13.6	59.1	9.1	15.9	2.3	0.0	100.0
E기관	건	4	26	16	8	4	0	58
	%	6.9	44.8	27.6	13.8	6.9	0.0	100.0
F기관	건	23	43	12	11	1	0	90
	%	25.6	47.8	13.3	12.2	1.1	0.0	100.0

- 대위변제는 폐업과 마찬가지로 1년~2년 사이에 151건으로 전체 폐업업체의 44.4%를 차지함

4) 지원금 종류

○ 폐업

- 경영개선자금을 제공받은 업체의 35.3%인 266개 업소가 폐업신고를 했고,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업체의 42.3%인 537개 업소가 폐업신고를 했음
- 대부분의 수행기관이 관리하는 업체 중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업체가 경영개선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보다 폐업률이 높았지만, A기관의 경우 경영개선자금을 지원받은 업체의 폐업률이 더 높았음

[표 4-7] 지원금 종류별, 수행기관별 폐업률

민간위탁 수행기관	경영개선자금 폐업		창업자금 폐업		총합계	
	건수	백분율	건수	백분율	건수	백분율
A기관	45	47.4	95	40.8	140	42.7
B기관	32	32.7	72	42.4	104	38.8
C기관	33	33.0	68	36.0	101	34.9
D기관	25	30.9	57	41.9	82	37.8
E기관	51	37.8	131	46.1	182	43.4
F기관	75	32.1	114	44.0	189	38.3
전체	261	35.3	537	42.3	798	39.6

○ 대위변제

[표 4-8] 지원금 종류별, 수행기관별 대위변제율(건수 기준)

민간위탁 수행기관	경영개선자금 대위변제		창업자금 대위변제		총합계	
	건수	백분율	건수	백분율	건수	백분율
A기관	23	24.2	44	18.9	67	20.4
B기관	13	13.3	30	17.6	43	16.0
C기관	14	14.0	24	12.7	38	13.1
D기관	14	17.3	30	22.1	44	20.3
E기관	19	14.1	39	13.7	58	13.8
F기관	34	14.5	56	21.6	90	18.3
총합계	117	15.7	223	17.5	340	16.9

[표 4-9] 지원금 종류별, 수행기관별 대위변제율(금액 기준)

(단위: 백만 원)

민간위탁 수행기관	경영개선자금 대위변제		창업자금 대위변제		총합계	
	대위변제금액	백분율	대위변제금액	백분율	대위변제금액	백분율
A기관	262	18.1	842	17.3	1,104	17.5
B기관	131	7.8	591	14.5	721	12.6
C기관	137	7.8	504	11.7	642	10.6
D기관	182	13.3	616	18.7	798	17.1
E기관	201	9.1	752	11.1	954	10.6
F기관	510	12.0	1,177	17.5	1,687	15.4
총합계	1,422	11.2	4,483	14.9	5,906	13.8

- 건수를 기준으로 집계한 대위변제의 경우에도 폐업과 마찬가지로 창업자금을 대출받은 업체가 경영지원자금을 대출받은 업체보다 다소 발생률이 높았음
- 하지만 이를 수행기관별로 살펴보면, B기관, D기관, F기관 등 3개 수행기관에서는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업체에서 대위변제가 더 많이 발생한 반면, A기관, C기관, E기관에서는 경영개선자금을 지원받은 업체에서 대위변제가 더 많이 발생함
- 금액기준으로 집계한 대위변제율 또한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업체에서 더 높았으며, 건수 기준으로 집계한 것과 달리 A기관만 유일하게 창업자금 대위변제율이 경영개선자금 대위변제율보다 낮았음

5) 폐업 사유

[표 4-10] 폐업 사유

폐업사유	건	백분율
가족문제	21	4.3
개인사정	28	5.7
개인회생	8	1.6
건강문제	37	7.5
기타	3	0.6
매각	15	3.0
매출 부진	227	46.1
명의 변경	9	1.8
법인 전환	5	1.0
본사와 갈등	3	0.6
불경기	12	2.4
불명	6	1.2
사고	8	1.6
사업장 공사	3	0.6
사업장 이전	23	4.7
상권 열악	7	1.4
악성부채	1	0.2
업종 변경	15	3.0
외부요인 (메르스, 조류독감 등)	7	1.4
운영 미숙	13	2.6
임대인과 갈등	12	2.4
직원과 갈등	2	0.4
취업	23	4.7
휴업	4	0.8
총합계	492	100.0

- 각 수행기관별로 폐업업체에 대한 폐업 사유를 조사했는데, 총 824개 폐업업체 중 492개 업체가 응답함
- 폐업의 가장 큰 원인은 매출부진으로 나타났고 그 외 건강문제가 7.5%, 개인사정(이민 등)이 5.7%, 사업장 이전이 4.7%, 취업이 4.7%, 가족문제(불화, 이혼 등)가 4.3% 순으로 나타남

05

민간위탁 수행기관 성과평가

- 1_성과평가 방법
- 2_민간위탁 수행기관 성과평가 결과

05 | 민간위탁 수행기관 성과평가

1_성과평가 방법

1) 정량적 평가

- 역량, 활동, 실적 관련 지표의 경우 양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표준화 점수로 전환 후 합산
 - 각 지표의 측정 단위와 상대적 분포가 다르기 때문에 각 지표별 분포에 따라 점수를 표준화하여 활용함
 - 수집 자료는 6개 기관에서 개별 제출한 자료를 기반으로 일부 증빙이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함
 - 재정분야 지표의 경우 2017년 6월부터 한국능률협회에서 수행한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준용함

- 전문가 대상 AHP 결과를 활용하여 가중치 도출 후 적용
 - AHP 설문대상 : 관련 분야 전문가 12명(대학 교수 : 5명, 연구기관 전문가 : 5명, NGO 관련자 : 2명)
 - AHP 설문기간: 2018년 7월 4일 ~ 7월 8일(총 5일간)
 - 일관성 비율(CR) : 0.13

- 가중치 도출 결과
 - 역량(0.15) : 인력(0.10)+조직(0.03)+재정(0.02)
 - 활동(0.25) : 발굴 및 선정(0.10)+사후관리(0.10)+사업운영(0.05)
 - 실적(0.20) : 보증공급(0.10)+대위변제(0.10)
 - 성과(0.40) : 경제적성과(0.15)+비경제적성과(0.05)+사업만족(0.20)

2) 성과평가 지표체계

역량		활동		실적		성과				
인력	투입인력	-전담 인력 수	발굴 및 선정	홍보 및 발굴실적	-신청자 수 -대출신청 비율 -홍보실적 개선도	보증공급 실적	보증공급 건수 -보증공급 금액	경제적 성과	경제적 자립	-생존율 -매출액 증감률 -부채 증감률 -수급 탈피율
	인력전문성	-1인당 평균 경력기간 -1인당 평균 교육시간		선정과정 투명성	-외부 심사위원 비율				일자리 창출	-고용 근로자수 -근로자 월평균 급여
	유사사업 경력	-유사사업 수행 횟수 -유사사업 수행 규모		사후관리	사후관리 실적				-사후관리비 비율 -사전 창업 교육시간 -개별 컨설팅 횟수	비경제적 성과
조직	조직 안정성	-정규직 전담 인력 수 -이직률	사후관리 인력		-사후관리 인력 수 -사후관리 인력 평균 경력	사업만족도	민간위탁 수행기관의 사업활동	-선정기준 적합성 -심사과정 적합성 -면접심사 적합성 -심사과정 투명성 -창업교육 효과성 -개별 컨설팅 적절성 -개별 컨설팅 효과성 -컨설팅 인력에 대한 신뢰 -위탁수행기관과의 유대감 -수행기관 서비스 종합만족		
	재정부담 능력	-재무구조 평가	문역규정 및 투명성		-업무매뉴얼 구비 여부 -외부 회계감사			대위변제 실적	-대위변제 건수 -대위변제 금액	
재정	예산운영 적정성	-예산 절감 노력	사업개선 노력	-지도점검 이행 여부	대외교류 및 협력			-MOU 건수 -타 기관 연계프로그램 건수		

[그림 5-1] 수행기관 성과평가 지표체계

- 성과평가는 사업추진 단계에 따라 역량, 활동, 실적, 성과로 구분하여 평가
 - 역량 부문은 인력, 조직, 재정 항목으로 구성하여 평가함
 - 활동 부문은 발굴 및 선정, 사후관리, 사업운영 항목을 통해 평가함
 - 실적 부문은 보증공급 실적 및 대위변제관리 실적 항목으로 평가함
 - 성과 부문은 경제적·비경제적 성과와 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중심으로 평가함

2_민간위탁 수행기관 성과평가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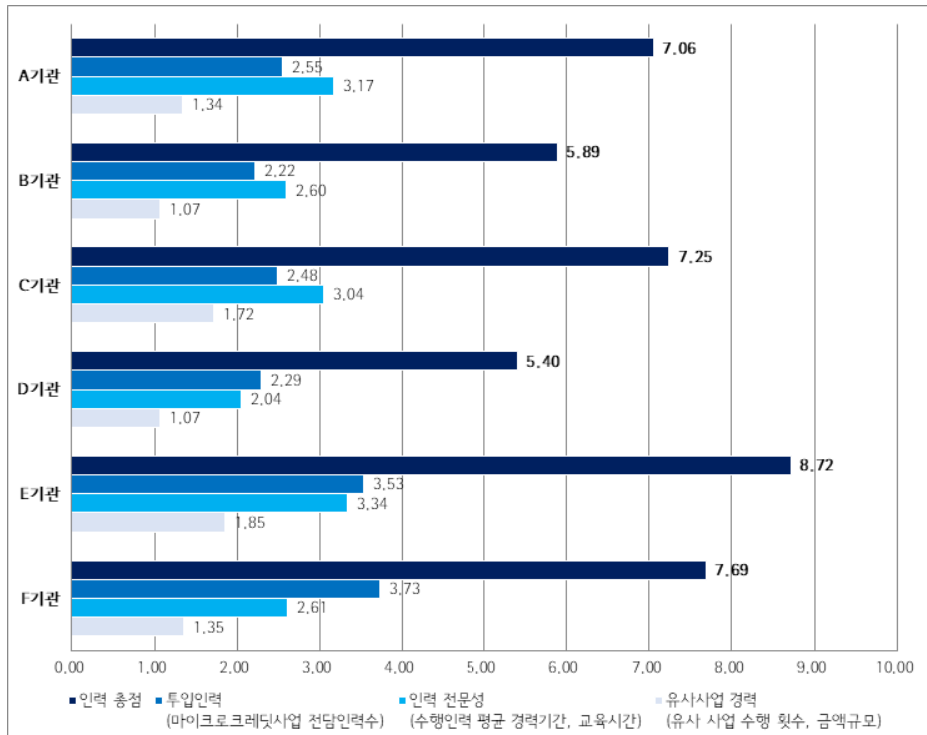
[표 5-1] 민간위탁 수행기관 성과평가 결과 종합

구분		A기관	B기관	C기관	D기관	E기관	F기관
역량	인력	7.06	5.89	7.25	5.40	8.72	7.69
	조직	2.09	1.87	2.40	1.53	2.41	2.29
	재정	1.16	1.38	1.18	1.27	1.87	1.53
	소계	10.31	9.14	10.83	8.20	13.00	11.51
활동	발굴 및 선정	2.68	2.96	3.08	2.78	2.50	2.80
	사후관리	5.74	7.27	7.45	6.35	9.06	6.13
	사업운영	4.02	4.44	4.07	4.13	4.53	4.30
	소계	12.44	14.67	14.60	13.26	16.09	13.23
실적	보증공급	6.65	5.98	6.26	5.20	8.32	9.59
	대위변제 관리	5.19	7.61	8.89	5.32	8.71	6.28
	소계	11.84	13.59	15.15	10.52	17.03	15.87
성과	경제적 성과	8.99	12.25	12.78	9.58	10.19	9.21
	비경제적 성과	3.92	3.43	3.73	2.92	2.75	4.25
	사업 만족도	14.51	13.32	16.66	15.42	9.13	14.95
	소계	27.42	29.00	33.17	27.92	22.07	28.41
총합		62.01	66.40	73.75	59.90	68.19	69.02

- 지표체계에 의한 평가결과 C기관(73.75), F기관(69.02), E기관(68.19), B기관(66.40), A기관(62.01), D기관(59.90) 순으로 집계되었음

(1) 역량

① 인력 : 인력 부문 지표는 투입인력, 인력전문성, 유사사업 경력을 중심으로 측정되었으며, 평균점수는 7.00점이고, 점수는 E기관(8.72), F기관(7.69), C기관(7.25), A기관(7.06), B기관(5.89), D기관(5.40) 순으로 집계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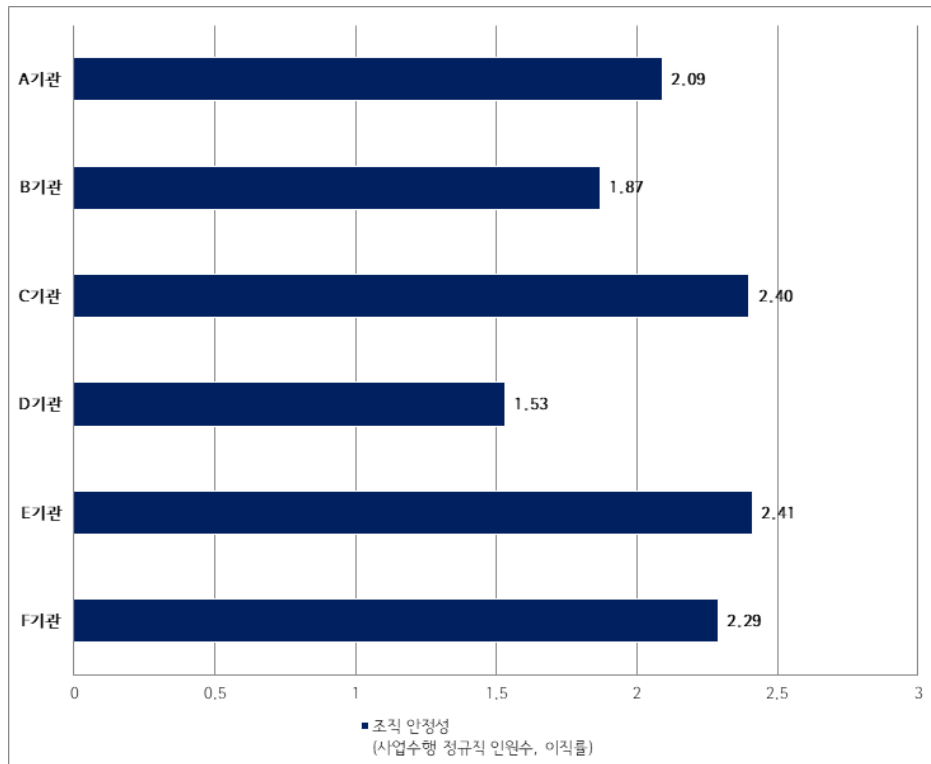
[그림 5-2] 수행기관별 인력 점수

- 투입인력 : 연간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전담인력 수(2012~2017년)
 - 투입인력은 F기관(3.73), E기관(3.53), A기관(2.55), C기관(2.48), D기관(2.29), B기관(2.22) 순으로 나타났으며 평균점수는 2.80점임
- 인력 전문성 : 1인당 사회적 금융과 관련된 평균 경력시간 및 평균 교육시간 (2016~2017년)

- 인력 전문성은 E기관(3.34), A기관(3.17), C기관(3.04), F기관(2.61), B기관(2.60), D기관(2.04) 순으로 나타났으며 평균점수는 2.80점임

- 유사사업 경력 : 사회적 금융 관련 사업 수행 횟수 및 규모(2016~2017년)
 - 유사사업 경력은 해당기관의 전문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E기관(1.85), C기관(1.72), F기관(1.35), A기관(1.34), 그리고 B기관(1.07) 및 D기관(1.07) 순으로 나타났으며 평균점수는 1.49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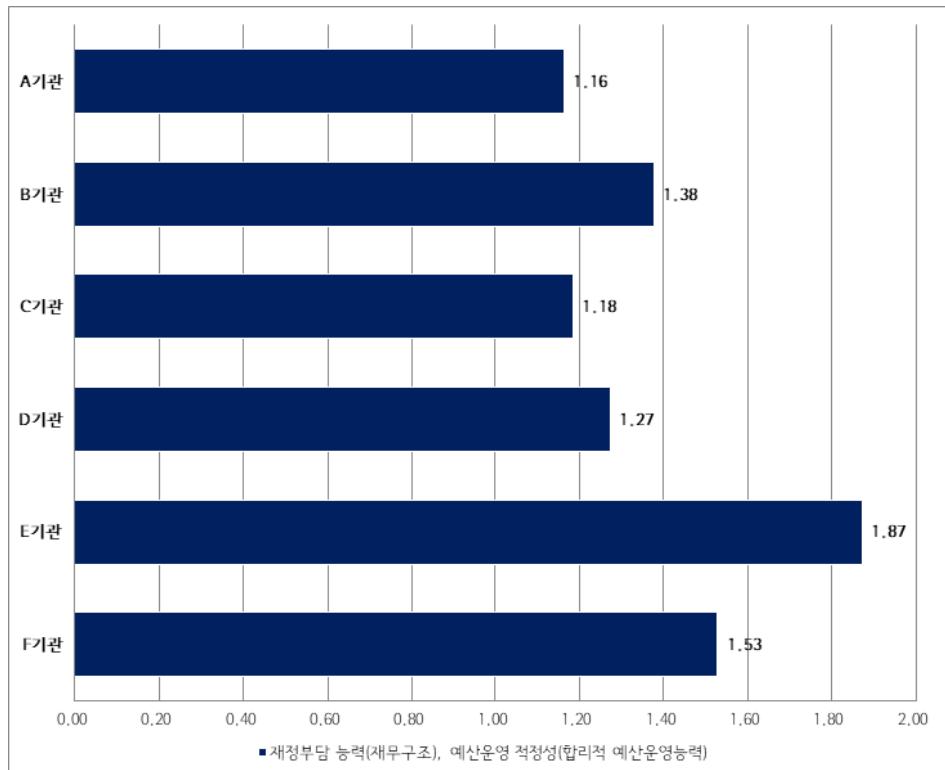
② 조직 : 조직 부문은 E기관(2.41), C기관(2.40), F기관(2.29), A기관(2.09), B기관(1.87), D기관(1.53) 순으로 나타났으며 평균점수는 2.10점임



[그림 5-3] 수행기관별 조직 점수

- 조직 안정성 : 정규직 전담 인력수와 이직률(2012~2017년)
 - 2017년 기준 A기관, C기관, E기관, F기관은 수행인력 전원이 정규직이었으며 D기관은 2명 중 1명, B기관은 전원이 비정규직이었음

③ 재정 : 재정부문은 E기관(1.87), F기관(1.53), B기관(1.38), D기관(1.27), C기관(1.18), A기관(1.16) 순으로 나타났으며 평균점수는 1.40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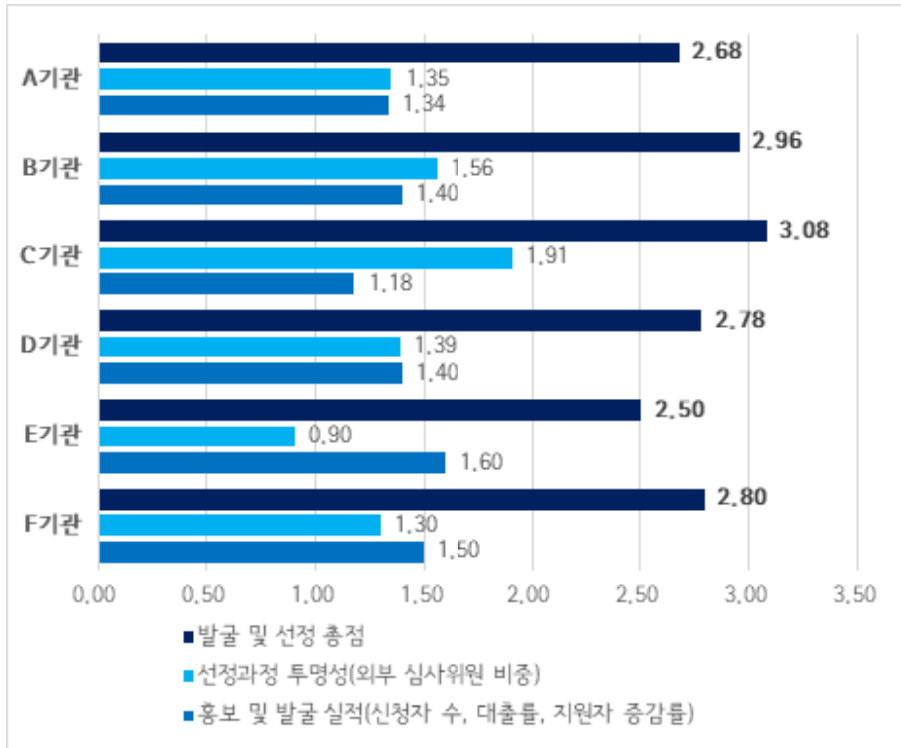


[그림 5-4] 수행기관별 재정 점수

- 재무구조 및 예산 운영 적절성 : 한국능률협회(KMAC) 평가자료 참고 (2017년)

(2) 활동

① 발굴 및 선정(홍보 및 발굴실적, 선정기준 적절성, 선정과정 투명성) : C기관(3.08), B기관(2.96), F기관(2.80), D기관(2.78), A기관(2.68), E기관(2.50) 순으로 나타났으며 평균은 2.80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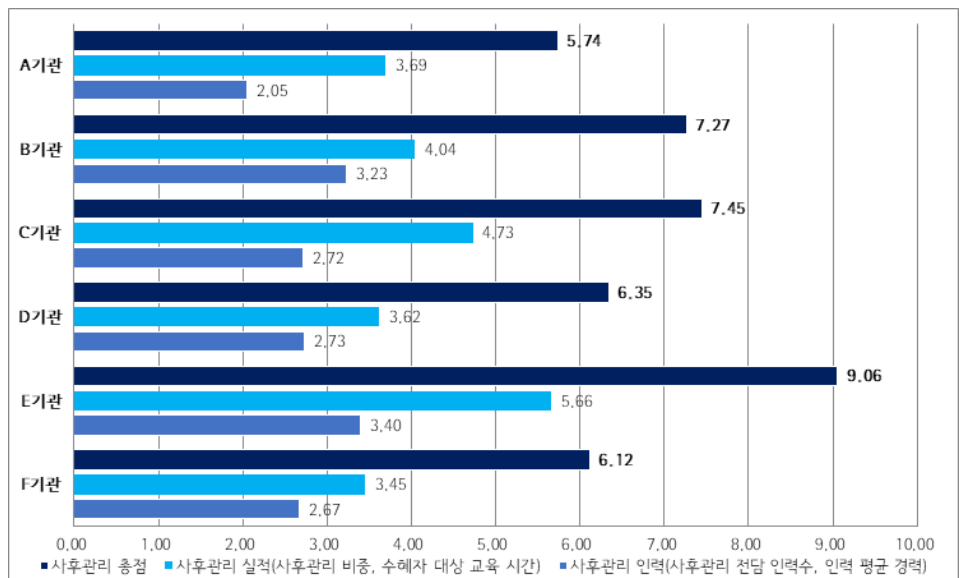
[그림 5-5] 수행기관별 발굴 및 선정 점수

- 홍보 및 발굴 실적 : 신청자 수, 대출률(2012~2017년), 지원자 증감률(2013~2017년)
 - 홍보 및 발굴 실적은 E기관(1.60), F기관(1.50), D기관(1.40), B기관(1.40), A기관(1.34), C기관(1.18) 순으로 나타남
 - 사업 시행연도인 2012년에 당시 6개 기관 중 가장 많은 신청자(150명)를 보유하고 있던 C기관은 2015년에는 신청자 수가 절반(75명)으로 감소하는 등 절대적인 수치와 실적 증감률에서 다른 기관에 비해 부진한 반면, 2012년 65

명에서 시작한 E기관은 2013년 264명의 신청자를 받는 등 지속적으로 많은 지원대상자를 발굴해서 높은 점수를 받았음

- 선정기준 투명성 : 외부 심사위원 비중 (2016~2017년)
 - 선정기준 투명성은 C기관(1.91), B기관(1.56), D기관(1.39), A기관(1.35), F기관(1.30), E기관(0.90) 순이었음

② 사후관리 (사후관리 실적 및 사후관리 인력) : 사후관리 총점은 E기관(9.06), C기관(7.45), B기관(7.27), D기관(6.35), F기관(6.12), A기관(5.74) 순으로 나타났으며 평균은 7.00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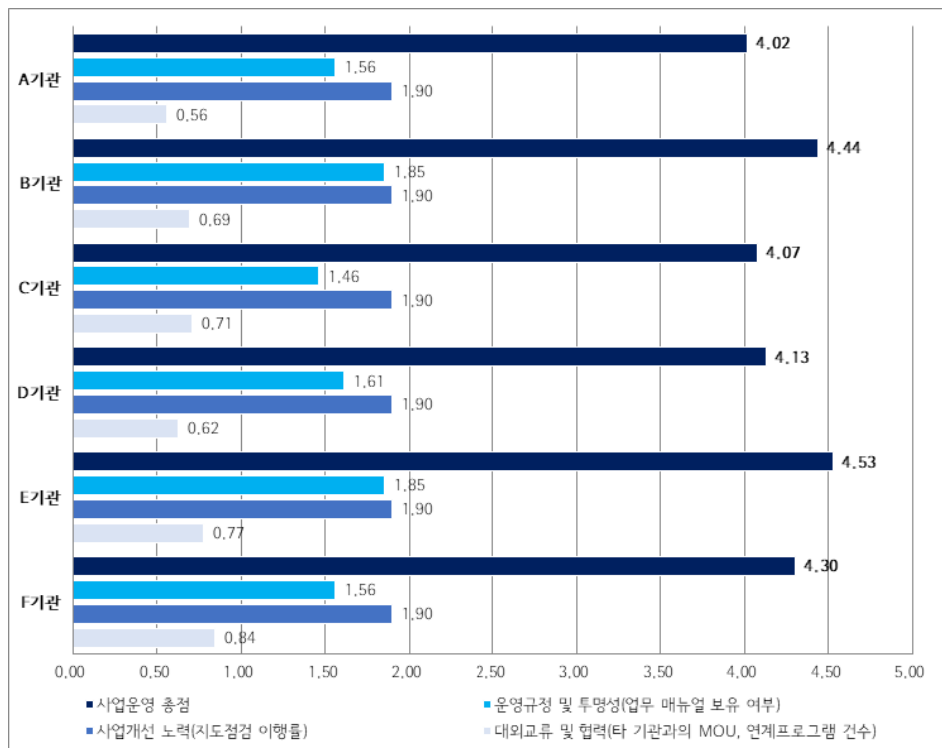


[그림 5-6] 수행기관별 사후관리 점수

- 사후관리 실적 : 운영예산 내 사후관리지출 비중 및 수혜자 대상 교육 시간 (2012~2017년)
 - 사후관리 실적은 E기관(5.66), C기관(4.73), B기관(4.04), A기관(3.69), D기관(3.62), F기관(3.45) 순으로 나타났으며 평균은 4.20점임

- 사후관리 인력 : 사후관리 전담 인력 수 및 평균 경력 (2016~2017년)
 - 사후관리 인력은 E기관(3.40), B기관(3.23), D기관(2.73), C기관(2.72), F기관(2.57), A기관(2.05) 순으로 나타났으며 평균은 2.80점임

- ③ 사업운영 (운영규정 및 투명성, 사업개선 노력, 대외교류 및 협력) : 사업운영 부문 총점은 E기관(4.53), B기관(4.44), F기관(4.30), D기관(4.13), C기관(4.07), A기관(4.02) 순으로 나타났으며 평균은 4.25점임



[그림 5-7] 수행기관별 사업운영 점수

- 운영규정 및 투명성 : 외부기관 통한 회계감사 횟수(2012~2017년) 및 업무 매뉴얼 보유 여부(2012년)
 - 운영규정 및 투명성 항목은 E기관(1.86), B기관(1.85), D기관(1.61), F기관 및 A기관(1.56), C기관(1.48) 순으로 나타났으며 평균은 1.65점임

- 모든 민간위탁 수행기관이 업무 매뉴얼을 보유했지만 외부기관을 통해 수행한 연간 회계감사 횟수에서 다소 차이를 보였음

- 사업개선 노력 : 지도점검 이행률(2016~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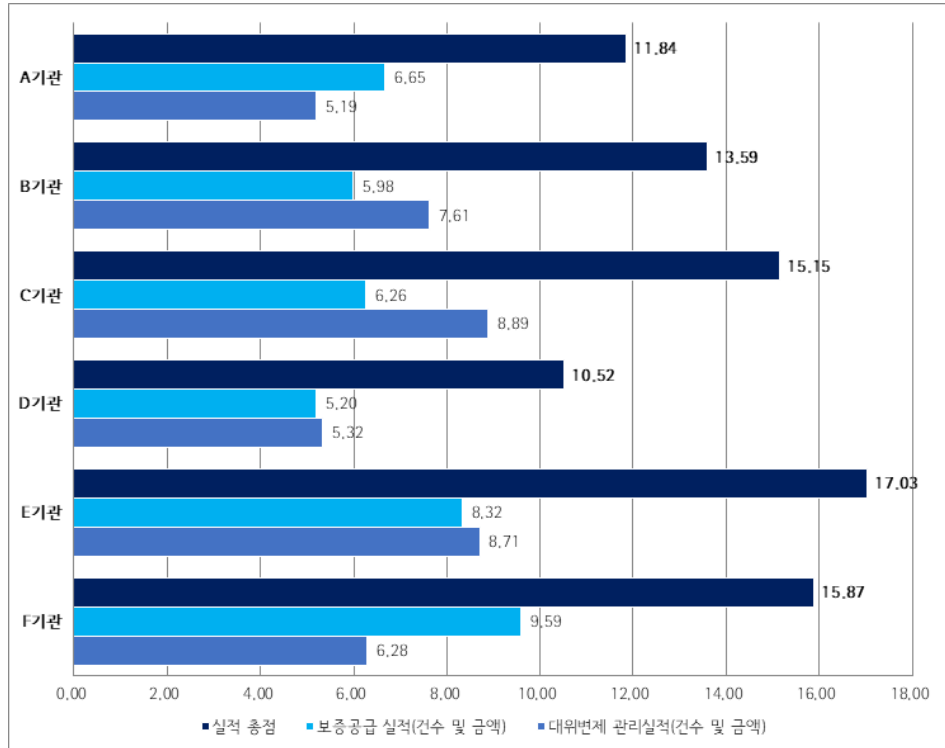
- 사업개선 노력 항목은 한국능률협회의 평가를 적용하였으며, 모든 기관이 지도점검을 100% 이행한 것으로 파악되어 1.90점으로 동일하게 책정이 되었음

- 대외교류 및 협력 : 타 기관과의 MOU 및 연계프로그램 건수(2012~2017년)

- 대외교류 및 협력 항목은 F기관(0.84), E기관(0.77), C기관(0.71), B기관(0.69), D기관(0.62), A기관(0.56) 순으로 나타났으며 평균은 0.70점임

(3) 실적

① 실적(보증공급 및 대위변제관리 실적 건수 및 금액) : 보증공급 실적 부문 총점은 E기관(17.03), F기관(15.87), B기관(13.59), A기관(11.84), D기관(10.52) 순으로 나타났으며 평균은 14.00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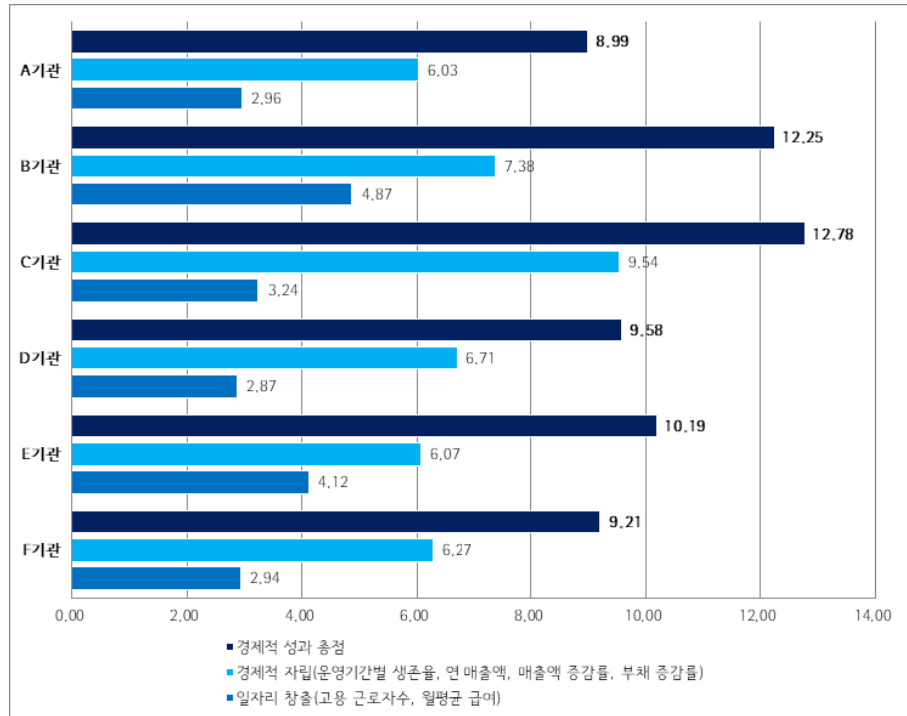
[그림 5-8] 수행기관별 실적 점수

- 보증공급 실적 : 건수 및 금액(2012~2017년)
 - 보증공급 실적은 F기관(9.59), E기관(8.32), A기관(6.65), C기관(6.26), B기관(5.98), D기관(5.20) 순으로 나타났으며 평균은 7.00임

- 대위변제관리 실적 : 건수 및 금액(2013~2017년)
 - 대위변제관리 실적은 C기관(8.89), E기관(8.71), B기관(7.61), F기관(6.28), D기관(5.32), A기관(5.19) 순으로 나타났으며 평균은 7.00점임

(4) 성과

① 경제적 성과(경제적 자립 및 일자리 창출) : 경제적 성과 총점은 C기관(12.78), B기관(12.25), E기관(10.19), D기관(9.58), F기관(9.21), A기관(8.99) 순으로 나타났으며 평균은 10.50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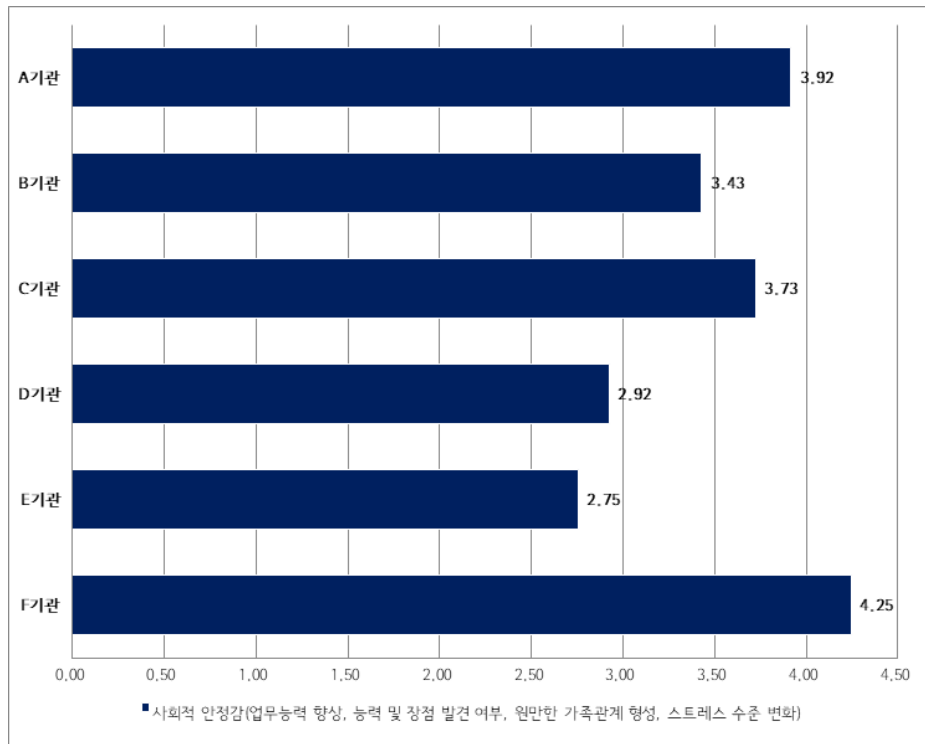
[그림 5-9] 수행기관별 경제적 성과 점수

- 경제적 자립 : 운영기간별 생존율, 연 매출액, 매출액 증감률, 부채 증감률
 - 경제적 자립 항목은 설문조사를 통해 얻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점수화했으며 이는 C기관(9.54), B기관(7.38), D기관(6.71), F기관(6.27), E기관(6.07), A기관(6.03) 순으로 집계되었으며 평균은 7.00점임

- 일자리 창출 : 고용 근로자 수, 월평균 급여

- 일자리 창출 항목 또한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점수화했으며 이는 B기관 (4.87), E기관(4.12), C기관(3.24), A기관(2.96), F기관(2.94), D기관(2.87) 순으로 나타났으며 평균은 3.50점임

- ② 사회적 안정감(업무능력 향상, 능력 및 장점 발견 여부, 원만한 가족관계 형성, 스트레스 수준 변화) 총점 : 비경제적 성과 총점은 F기관(4.25), A기관(3.92), C기관(3.73), B기관(3.43), D기관(2.92), E기관(2.75) 순으로 나타났으며 평균은 3.50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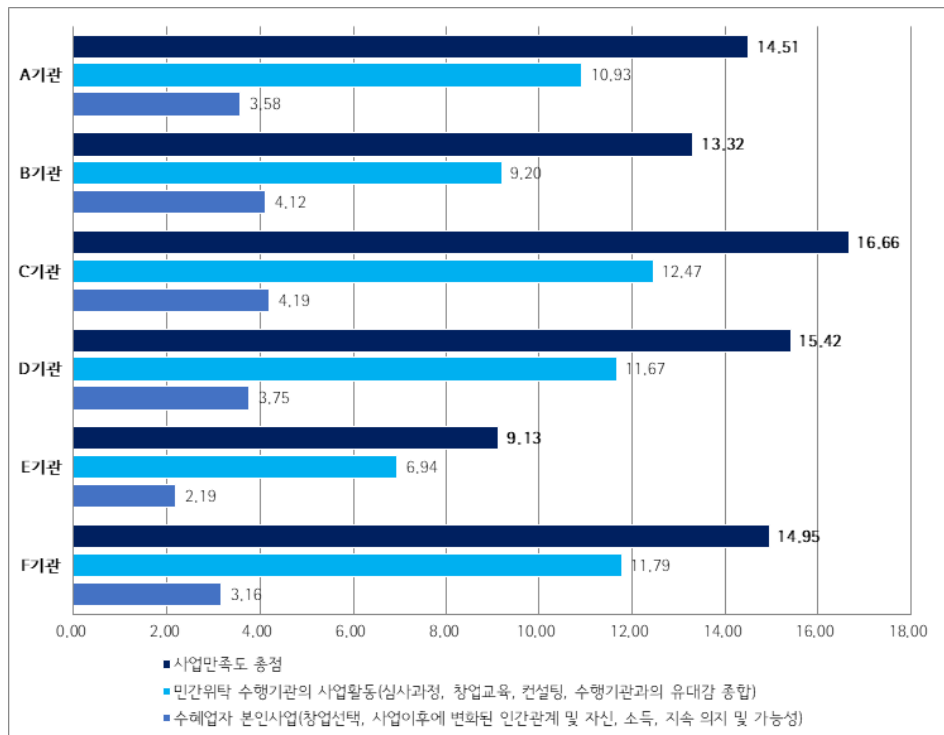


[그림 5-10] 수행기관별 비경제적 성과 점수

- F기관의 가입자들이 업무능력 향상, 스트레스 수준 변화 등의 항목에서 특히 높은 성취도를 보인 반면, E기관은 업무능력 향상을 제외한 모든 항목 (능력 및 장점 발견 여부, 원만한 가족관계 형성, 스트레스 수준 변화 등에

서 가장 낮은 성취도를 보임

③ 사업 만족도(민간위탁 수행기관의 사업 활동 및 수혜업자 본인사업 만족도) 총점 : 사업 만족도는 설문조사를 통해 점수화하였으며, 이는 C기관(16.66), D기관(15.42), F기관(14.95), A기관(14.51), B기관(13.32), E기관(9.13) 순으로 집계되었고 평균은 14.00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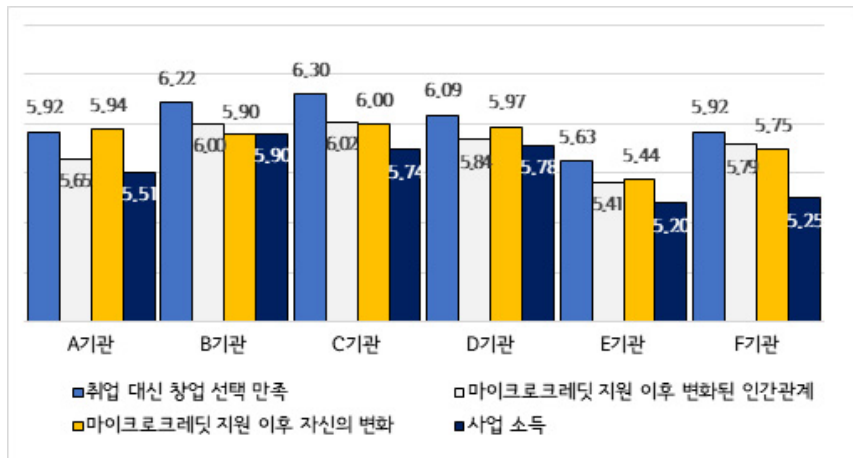


[그림 5-11] 수행기관별 사업 만족도 점수

- 수행기관의 사업 활동에 대한 만족도 : 심사과정, 창업교육, 컨설팅, 수행기관과의 유대감
 - 이는 C기관(12.47), F기관(11.79), D기관(11.67), A기관(10.93), B기관(9.20), E기관(6.94) 순으로 나타났으며 평균은 10.50점임
 - 수행기관의 사업 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설문조사를 통해 산출한 결과인데

7점 척도의 항목에서 E기관이 관리하는 업체들의 만족도가 다른 기관들보다(평균 5.69점) 확연히 낮은 5.39점을 받아 이 지표에서도 낮은 점수를 획득함

- 수혜업자 본인사업에 대한 만족도 : 창업선택, 사업 이후에 변화된 인간관계 및 자신, 소득에 대한 만족도, 지속의지 및 가능성
 - 본인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C기관(4.19), B기관(4.12), D기관(3.75), A기관(3.58), F기관(3.16), E기관(2.19) 순으로 나타났으며 평균은 3.50점임
 - 수혜업자 본인사업에 대한 만족도 또한 설문조사를 통해 집계되었는데, 7점 만점 척도(평균 5.76점)에서 C기관 가입자가 6.02점으로 가장 높은 반면에 E기관 가입자의 만족도가 5.42점으로 가장 낮았음



[그림 5-12] 수행기관별 본인사업 만족도

06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개선방안

- 1_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시사점
- 2_사업수행체계 개선방안
- 3_사업운영 개선방안

06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개선방안

1_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시사점

1) 사업 추진단계별 주요 시사점

- 높음
- 낮음

사업 추진단계	수행 주체	성과 수준	주요 내용	시사점
홍보 및 발굴	민간 위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개 민간위탁 수행기관의 고유 고객 등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으며, 사업 유입 경로도 해당 기관을 통하는 경우의 비율이 낮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굴 주체 및 경로 다양화 필요 • 서울시 차원의 홍보 채널 필요
선정	민간 위탁 서울 신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 과정에서 현장 실사의 한계 : 인력 부족 등 • 대출 심사 과정에서 추진체계의 복잡성으로 인해 신속한 자금조달에 한계 • 선정 과정에서 대위변제율에 대한 고려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 과정에서 공통된 매뉴얼을 구비하고 선정 체계도 단순화 필요 • 선정 과정에서 대위변제율을 너무 고려하는 것은 사업 취지를 흐릴 가능성이 있음
창업교육	민간 위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영상 교육 등 일부 콘텐츠가 부실하고, 형식적인 교육으로 그치는 경우도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교육에 대한 체계적 내실화 요구
경영교육	민간 위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무, 법률, 마케팅 등 경영 관련 교육의 경우 만족도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설팅 인력 부족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사후관리	민간 위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선정 후 약 1년간 초기에는 컨설팅 등 사후관리가 잘 이루어지나 그 이후에는 다소 형식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 지속성 유지가 필요하며, 사후관리 전담인력 부족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상환	민간 은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수기와 비수기가 뚜렷한 업종이 아닌 경우 매달 상환에 애로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환기간 유예 등의 제도적 유연성 도입 필요
평가	서울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 배분이 대출금액 위주의 실적만 반영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 배분 과정에서 대위변제율 반영 필요

-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추진단계 중 가장 성과 수준이 높은 단계는 경영교육

과 평가 단계였으며, 추가적으로 성과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각각 컨설팅 인력 확충과 예산 배분 시 대위변제를 반영이 요구됨

- 가장 성과가 낮은 항목은 창업교육으로 그 동안 일부 콘텐츠가 충실하지 못하거나 형식적인 강의로 그친 경우가 있어 창업교육의 체계적인 내실화가 요구됨

2) 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시사점

- 높음
- 낮음

구분	성과 수준	주요 내용	시사점
성과 가치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위탁 수행기관의 지리적 접근성이 떨어지고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음 ●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뿌리내린 '미소금융' 사업과 비교할 때 지역사회 연계 노력이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대학이나 직능단체 등과 연계 필요 ● 자치구의 역할 필요
	현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이나 컨설팅 실적은 좋으나, 내용의 적절성이나 효과성 측면에서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기관의 사후관리 전문성 제고 방안 필요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수혜자와 민간위탁 수행기관 간 유대감과 신뢰 정도는 매우 뛰어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후관리 과정에서 유대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사업수행체계 변화 시 민간위탁 수행기관의 역할을 대체하게 될 기관은 유대감과 신뢰를 형성하거나 유지할 역량과 기반을 갖춰야 함
사업 전반 (경제·비경제 성과,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생존율이 국가 전체 자영업자의 생존율에 비해 매우 뛰어나고 매출액 증가도 나타남 ● 사업 전반에 대한 만족도와 비경제적 성과가 우수한 수준으로 평가되나 대위변제 수준은 관리가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대상에 대한 보다 더 명확한 초점이 필요 ● 대위변제 관리를 현재와 같이 발굴 단계에서만 고려하는 것보다는 사후관리, 평가 등의 과정에서 관리하는 것이 사업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법임 	

- 성과평가에 따라 사업수혜자와 민간위탁 수행기관 간의 유대감과 신뢰 정도가 매우 높았으며, 사업수행체계가 변화 시에도 이러한 관계를 형성하거나 유지할 수 있는 역량이 요구됨
- 한편, 지리적 접근성의 한계나 지역사회와의 연계 노력이 부족한 것은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의 가장 미흡한 점으로 개선방안으로는 자치구의 역할 증대, 지역 대학이나 직능단체 등과의 연계 등을 고려할 수 있음

2_사업수행체계 개선방안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른 사업수행체계 개선방향

(1) 현재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자금 운용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해 지원됨
- 동 조례 제18조(업무의 위탁)에 ‘시장은 효율적인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 및 중소기업의 육성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그 관리운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이 민간위탁 형태로 추진되고 있음
- 그러나 2015년 7월 24일, 상위법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위탁범위가 대폭 축소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고,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의 수행체계에 변화가 요구됨

(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 내용(2015년 7월 24일자)

[표 6-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 내용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u>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u>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19조 제2항에 <u>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u>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기금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 위탁의 범위를 제한함
 - [표 6-1]에 제시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 개정의 핵심은 기금관리 위임 또는 위탁 주체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임
 - 개정 전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포괄적으로 위탁할 수 있었던 반면, 개정 이후에는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에 한해서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명기하여 사실 상 기금관리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였다고 볼 수 있음
 - 이런 맥락에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무의 일부를 위탁하여 운용되던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의 수행체계도 변화가 요구됨

(3) 사업추진체계 개선방향

-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의 자금인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에 속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위탁이 불가능하므로 서울시가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대행제도 등으로 사업수행체계 전환이 요구됨
 - 대행제도는 행정기관의 업무를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사실상 행하게 하되, 그 명이는 원 권한자인 행정기관으로 하고 책임도 원 권한자인 행정기관에 귀속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함^{*)}
 - 대행에 따른 법령상 권한의 이전은 발생하지 않고 대행기관이 원 권한자인 행정기관 명의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그 법률적 효과는 원 권한자인 행정기관이 직접 행사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함
 - 위탁제도는 행정기관이 법령상 권한의 일부를 하급행정기관이나 민간기관에 주어 수탁자가 자기의 권한으로 행사하게 하는 것이나, 대행제도는 대행자가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그 법률적 효과는 원 권한자인 행정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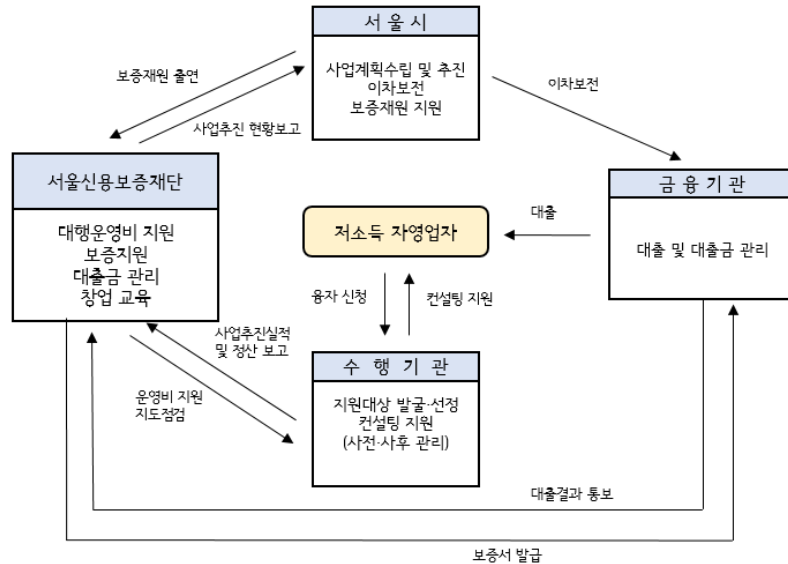
^{*)} 정부입법지원센터(<https://www.lawmaking.go.kr/main>)

관이 직접 행사한 것처럼 보게 된다는 점에서 행정기관의 책임성을 더욱 강화하는 차이가 있음

- 상위법 개정의 취지를 살려 대항기관(대항주체)은 서울시의 출연기관인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적합함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의 취지는 기금관리에 있어 위탁제도를 대폭 축소하여 공공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임
 - 대항제도 하에서 민간이 대항주체가 될 수도 있으나 이는 상위법 개정의 취지를 무시하고 법의 제한을 벗어나려는 의도로 오해의 소지가 있음
 - 따라서 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공공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서울시 소상공인 금융지원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타 소상공인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이 대항주체가 되는 것이 타당함

2) 중단기적 관점에서의 사업수행체계 역할 변화

(1) 대항제도를 활용하는 방안



[그림 6-1] 중단기적 사업수행체계 개편안

○ 역할 변화

- 대항제도 하에서는 대항의 주체가 사업의 전 과정을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나 현재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조직체계 하에서는 서비스 대상자들과 밀착된 관계를 형성하거나 현장 위주의 컨설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재단 산하의 자영업지원센터를 지역적으로 확장하거나 지점의 기능 변화 등이 선행되어야 함
- 단기간에 이러한 조직개편을 수행하기에는 제약이 있으므로 성과평가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민간 수행기관에서 강점을 보였던 사후관리 업무는 민간 부문에서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음
- 이 때 사후관리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수혜자를 발굴하고

선정하는 과정은 사후관리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적합함

- 창업교육 같은 경우 민간위탁 수행업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 가장 만족도가 낮은 부분이었고, 현재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창업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잘 마련되어 있으므로 재단에서 수행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됨

○ 추진 상 고려사항

-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의 가장 핵심은 비금융적인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현장에 더 밀착된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수행기관의 인력운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수행기관의 역량을 보다 더 집중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현재 보증실행 후 1년차까지는 매월, 2~3년차는 격월, 4~5년차는 분기 1회 실시하는 사후관리의 횟수는 줄이고 폐업이나 대위변제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1~3년차에 한해 보다 더 질 높은 사후관리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사후관리 대상을 줄이고 창업교육 기능을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사업 지원대상도 축소할 경우 지원규모에 비해 다소 큰 운영비를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른 수행기관 적정 수 검토가 불가피함

(2) 서울신용보증재단 고유 업무로 이관하는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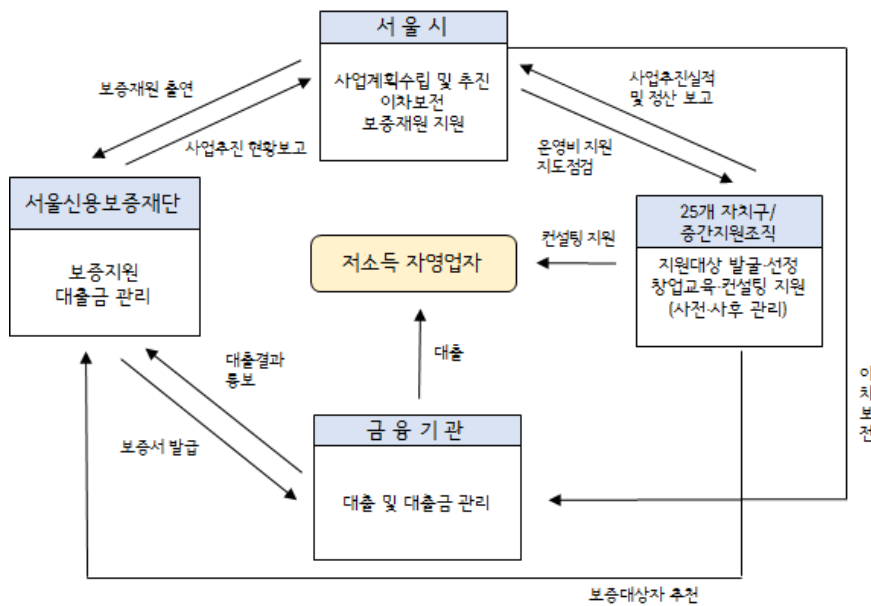
○ 역할변화

- 해당 사업을 운영할 규모와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의 고유 업무로 이관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음
- 사업을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 이관하게 될 경우, 현재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의 관리를 받고 있는 약 1,140여개의 업체에 대한 관련 서비스를 관리기간 종료 시까지 약 4~5년간 자영업지원센터에서 이행
- 또한 사업을 이관하게 되면 사업 운영이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의해 관리되는 것이 아니므로 시 예산을 통한 이차보전이 불가능하게 됨

○ 한계

- 우리나라는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활을 돕는 사회적 금융 분야의 민간 기금이 아직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공부문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함
- 대항제도와 마찬가지로 자영업지원센터에 대한 추가업무 발생에 따른 업무 부담이 증가할 수 있음
- 햇살론, 장애인기업 특별보증 등 이미 유사한 특별 보증상품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입장에서는 신규 사업 추진이 불필요할 수 있음
- 서울신용보증재단 특성 상 사업운영의 초점이 대위변제에 지나치게 집중될 수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크레딧 본래의 취지가 흐려질 가능성이 존재함

3) 장기적 관점에서의 사업수행체계 변화



[그림 6-2] 장기적 사업수행체계 개편안

(1) 자치구의 역할 분담 검토

- 미국 뉴욕 등 해외 사례와 같이 지역적 특성을 잘 반영하여 지역 밀착형 소상공인 지원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25개 자치구의 역할 분담을 검토할 수 있음
 - 뉴욕의 경우, 2008년 퀸즈(Queens)에서 처음 설립되어 브루클린(Brooklyn)과 맨해튼(Manhattan)에 지사를 연 그라민 아메리카(Grameen America), 그리고 1991년부터 뉴욕시에서 마이크로크레딧을 운영해 브루클린, 퀸즈 등으로 사업을 확장해 온 악시온(ACCION) USA가 지역 밀착형 (community-based)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평균 25명 정도 되는 인근 지역의 서비스 수혜자들이 매주 미팅을 갖고 정보를 공유하며, 전문 컨설턴트나 상담가들도 미팅에 참여해 창업교육과 상환 노하우를 전수함
 - 또한 St. John's University와 같은 지역 대학과 연계해 졸업생들을 현장 인력에 투입함
-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 수행체계 변화 사례와 같이 자치구별로 중간지원조직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는 방안 필요
 -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이 2017년에 겪었던 가장 큰 변화는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수행하던 사업체계를 자치구 단위의 중간지원조직을 두어 지역 밀착형 사업지원체계로 변화했다는 점임
 - 영세 자영업자 지원 대책의 경우 서울시 자치구들도 관심이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몇몇 자치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형태로 먼저 추진할 수 있으며, 현재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수혜 사각지대에 가까운 자치구들이 우선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음
 - 한편, 해당 체계 전환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아닌 일반회계로 추진해야 하며, 이차보전 근거 조례 또한 신설해야 함

- 큰 틀에서 서울시가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며, 25개 자치구가 주요 행위자로서 서울시와 보증 재원을 공동부담하고 중간지원조직들과 함께 사업 수혜대상자 발굴 및 선정부터 사전·사후관리까지 담당
-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역할은 보증심사와 대출금관리로 제한되고, 금융기관은 대출금을 지원하되 마을단위의 지역기반 금융기관(신협, 새마을금고 등)으로 다양화할 필요성이 있음

3_사업운영 개선방안

1) 발굴·선정 단계

(1) 발굴 및 홍보 채널의 다양화

- 현 발굴 및 홍보 체계의 문제점
 - 보증공급 실적의 경우 2013년 411명에게 대출금을 지원한 이후,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평균 350명 수준에 머물러 있음
 - 민간위탁 수행기관의 지역적 편재로 인한 수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발굴 과정에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대상자가 중복되는 ‘찾동’ 사업의 사회복지사를 활용하여, 자영업 희망자를 발굴하고 홍보하는 방안
 - 전체 사업 금액의 일부 비율(예를 들어 10%)만을 대상으로 ‘찾동 사회복지사 특별지원’으로 할당함
 - 사회복지사들의 역할은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 자영업자들에게 본 사업을 소개하여 사업 수행기관에 연계하는 역할로 한정됨
 -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생업에 바빠 실제 홍보에 노출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정책 자금의 지원 대상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많아 보다 더 적극적인 대상 발굴 차원에서 고려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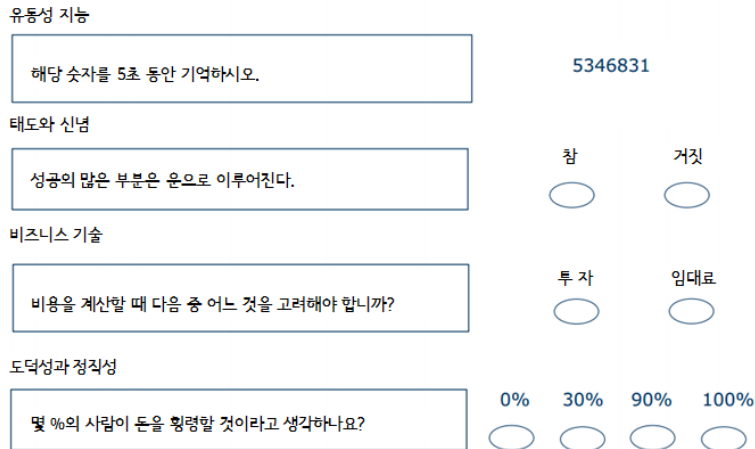
(2) 선정 지표의 다각화

- 현 선정 체계 문제점
 - 현재의 사업 수혜자 선정 과정에서는 자활의지를 객관적으로 평가·분석할 수 있는 모형 및 지표가 없다고 볼 수 있음
 - 지표의 부재는 선정에 있어 개인의 신용등급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향 초

래함 (2012년 CB 1~4등급 : 34.8% -> 2017년 66.9%로 급증)

○ 정성적 평가 체계 도입

- 자활의지 및 품성을 테스트와 인적 기록(교통법규 준수, 납세의무 성실히행 등)을 통해 도출하는 지표체계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 해외의 경우, 금융기관에서 대출심사를 할 시 태도(attitude), 통제력(control), 사업가적 잠재력(entrepreneurial potential), 메타데이터(meta data), 사회적 행동(social behavior) 등 다양한 항목을 평가하며, 이러한 심리적 지표(psychometric index) 점수가 실제 상황들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지녀 널리 활용되고 있음
- 정성적 평가 체계를 도입하면 신용정보가 부족해 수혜대상에서 탈락한 신청자를 구제할 수 있고 수혜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또한 대위변제율을 제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함
- 아울러 개인 신용등급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선정 방식에서 탈피해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본연의 취지에 보다 더 적합한 발굴 및 선정 활동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자료: Financial Times (2014)

[그림 6-3] 신용분석을 위한 심리테스트 예시

(3) 사업 지원대상자 범위 검토 필요

- 현 지원대상자 범위의 문제점
 - 사업 지원대상자 범위가 너무 넓어 사업의 본래 취지를 흐릴 가능성이 있음
 - 지원 대상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할 경우 정책금융으로 인해 준비되지 않은 자영업자가 몰릴 가능성이 있음
 - 특히 타 금융지원 프로그램과 대상이 겹치는 경우 이를 제외하고 기존 제도권 금융대출이 어려운 계층을 중심으로 사업대상을 집중할 필요가 있음
- 조정 방안
 - 여성가장 또는 한부모가정의 경우 ‘서울시 민생경제안정을 위한 유동성지원 특별보증’과 대상이 겹침
 - 장애인의 경우에도 신보의 특별보증상품 중 ‘장애인기업 특별보증’ 상품과 대상이 중복되고 다등이가정은 사업 본래 취지와 맞지 않음
 - 여성가장, 한부모가정, 장애인, 다등이가정 등 서울신용보증재단 특별보증 상품과 중복되는 지원 자격으로 대출금을 지원받은 수혜자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약 543명으로 건수를 기준으로 전체 2,014명의 27.0%를 구성함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연소득 3천만 원 이하의 저소득층, 새터민, 다문화가정, 실직자 등으로 범위를 한정하되 선정과정에서 대위변제율을 과도하게 고려하여 신용등급 위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2) 대출 및 상환 단계

(1) 대위변제 관리를 위해 성실 상환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

- 현 상환 시스템의 문제
 - 상환 도중에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거나, 발생해도 이를 해결할 제도적 장치가 부재함

○페이백 제도

- 페이백 제도는 상환을 완료한 모든 수혜자에게 총 부담한 정상이자외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환급해주는 제도임
- 경기신용보증재단 굿모닝론의 경우 페이백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상환 완료자에 총 부담 이자액의 20%를 환급하고 있음(창업자금 3,000만원 대출 시 총 부담해야하는 이자액은 244.2만원이므로 총 환급액은 약 48.8만원)
-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을 통해 창업자금 3,000만원을 대출받는다 고 했을 때, 대출기간인 5년 동안(1년 거치) 총 부담해야하는 이자액은 약 165.5만원이기 때문에 20%의 페이백 제도를 시행하면 총 환급액은 약 33만원임
- 굿모닝론은 금리가 2.99%로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1.8%)보다 높기 때문에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이 굿모닝론과 유사한 효과를 보이려면 총 부담 이자액의 30%(49.7만원)을 환급해야 함
-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에서 상환기간이 만료된 210개 업체(2012년 대출) 중 상환을 완료한 업체는 136개로 전체의 64.8%를 구성하는데, 이 비율이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페이백을 지급하게 되면 한 해 평균 약 7,610만원의 자금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20%환급 시 약 5,052만원의 자금 소요)
- 이는 사업시행연도부터 2017년도까지의 전체 대출금액의 약 0.1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페이백 제도로 금액기준 대위변제율이 약 0.18%포인트 향상된다면 오히려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20% 환급 시 전체 대출금액의 약 0.12%에 해당)

○ 추가대출 시 이자 감액 혜택 제공 방안

- 현 사업체계에서는 상환을 완료하면 경영개선자금으로 다시 대출 받는 것이 가능하지만 이에 대한 이자 감액 혜택은 부재함
- 해외 다수의 서민금융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이자 감액 혜택은 이미 금리가 1.8%로 현저하게 낮은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에서는 적합하지 않

을 수 있지만, 수혜자의 상황에 대한 동기부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려해볼 사안임

3) 평가 단계

(1) 대위변제 관리를 위한 사업비 배분방식 변경

- 현행 배분방식(2018년 상반기 배분)

[표 6-2] 2018년 상반기 사업비 배분

기관명	'18년 상반기 배분액(백만 원)	2017년 대출실적	
		금액 (백만 원)	비중 (%)
합계	4,000.0	7,756	100.0
1 A기관	522.0	918	11.8
2 B기관	595.0	1,107	14.3
3 C기관	707.5	1,398	18.0
4 D기관	492.5	842	10.9
5 E기관	733.0	1,465	18.9
6 F기관	950.0	2,026	26.1

- 2018년 상반기 수행기관별 예산 배분은 대출실적을 기준으로 산정함
- 40억원 중 30억 원은 대출실적을 기준으로, 10억 원은 균등하게 인배함

- 현행 문제점

- 다른 유사사업(미소금융, 햇살론)과 달리 대위변제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사업의 효과성과 지속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
- 대위변제는 ①수혜대상자 발굴 및 선정 단계 ②수혜대상자 사후관리 단계 ③수행기관에 대한 성과평가 및 예산배분의 단계에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나 현재는 주로 수혜대상자 발굴 및 선정 단계에서만 신용등급을 위주로

고려되고 있어 사업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대위변제를 예산액 배분 산정근거에 포함하는 방안은 각 수행기관이 대위변제를 줄이기 위한 동기부여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됨

○ 예산 배분액 변경 방안

- 대위변제율(금액기준)을 대출실적과 함께 고려해 예산을 배분함
- 대위변제율은 표준점수로 변환하여 비율을 계산함
- 균등배분액(10억 원) + {대출실적(80%, 24억 원) + 대위변제실적(20%, 6억 원)}

○ 기관별 예상 배분액

[표 6-3] 수행기관별 예상 배분액

2018년 하반기 예산배분	균등 배분액 (백만 원)	2017년 대출실적 (백만 원)	대출실적 기준금액 (백만 원)	대위 변제율 (%)	대위변제 표준점수	대위변제 기준금액 (백만 원)	총예산 배분액 (백만 원)	2018 상반기 대비 증감액 (백만 원)
A기관	166.7	918	284.1	17.51	31.64	52.7	503.5	△18.5
B기관	166.7	1,107	342.6	12.55	71.19	118.6	627.9	32.9
C기관	166.7	1,398	432.6	10.58	86.90	144.8	744.1	36.6
D기관	166.7	842	260.5	17.09	34.99	58.3	485.5	△7.0
E기관	166.7	1,465	453.3	10.60	86.74	144.5	764.5	31.5
F기관	166.7	2,026	626.9	15.39	48.54	80.9	874.5	△75.5
합계	1,000.2	7,756	2,400.0	-	-	599.8	4,000.0	-

참고문헌

- 경기신용보증재단, 2018, 「경기도 굿모닝론 현황」.
- 금융감독원, 2013, 「대부업체 실태조사」.
- 금융감독원, 2014, 「대부업체 실태조사」.
- 금융위원회, 2014,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방안」.
- 금융위원회, 2018,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T/F」 1차 회의 개최 보도자료.
- 김명록, 2016, 한국 마이크로 파이낸스의 현황과 과제: 신용공급과 재무지속성을 중심으로, 「산업혁신연구」, 제32권 제1호, 213~242.
- 김정원, 2015, 빈곤층 창업지원 프로그램의 특징과 개선방안: 자활사업과 마이크로크레딧을 중심으로, 「산업혁신연구」, 제31권 제4호, 75~109.
-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2015, 「2014년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추진실적」.
-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2016, 「2015년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추진실적」.
-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2017, 「2016년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추진실적」.
-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2018, 「2017년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추진실적」.
-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2018, 「2018년도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사업계획서」.
- 민생경제정책연구소, 2015, 「2014년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추진실적」.
- 민생경제정책연구소, 2016, 「2015년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추진실적」.
- 민생경제정책연구소, 2017, 「2016년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추진실적」.
- 민생경제정책연구소, 2018, 「2017년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추진실적」.
- 민생경제정책연구소, 2018, 「2018년도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추진 계획」.
- 민세진, 2013, 유럽연합의 마이크로크레딧 기관 현황을 통한 한국의 정책 개선 방안 모색, 「EU 학 연구」, 제18권 제1호, 33~80.
- 사회연대은행, 2015, 「2014년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추진실적」.
- 사회연대은행, 2016, 「2015년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추진실적」.
- 사회연대은행, 2017, 「2016년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추진실적」.

- 사회연대은행, 2018, 「2017년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추진실적」.
- 사회연대은행, 2018, 「2018년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사업계획서」.
- 서울광역자활센터, 2015, 「2014년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추진실적」.
- 서울광역자활센터, 2016, 「2015년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추진실적」.
- 서울광역자활센터, 2017, 「2016년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추진실적」.
- 서울광역자활센터, 2018, 「2017년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추진실적」.
- 서울광역자활센터, 2018,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사업계획서」.
- 서울시, 2014, 「2013년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지원사업 사업추진 결과 및 정산 검토 보고」.
- 서울시, 2017,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운영계획」.
- 서울시, 2018, 「영세 소상공인 자립기반 지원을 위한 2018년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운영계획」.
- 신나는조합, 2015, 「2014년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추진실적」.
- 신나는조합, 2016, 「2015년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추진실적」.
- 신나는조합, 2017, 「2016년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추진실적」.
- 신나는조합, 2018, 「2017년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추진실적」.
- 신나는조합, 2018, 「서울시 민간위탁사무: 사업계획서」.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2016, 「서민금융지원의 성과와 과제: 햇살론을 중심으로」.
- 열매나눔재단, 2015, 「2014년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추진실적」.
- 열매나눔재단, 2016, 「2015년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추진실적」.
- 열매나눔재단, 2017, 「2016년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추진실적」.
- 열매나눔재단, 2018, 「2017년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추진실적」.
- 열매나눔재단, 2018, 「2018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추진 계획서」.
- 임은의 · 김학령, 2018,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운영의 효과성 측정을 위한 척도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디지털정책학회논문지」, 제16권 제6호, 27~35.
- 임은의 · 정영순, 2015, 한국 마이크로크레딧 기관의 운영자립도에 관한 탐색적 연구, 「사회복지정책」, 제40권 제2호, 123~148.
- 정영석 · 이기영, 2013, 마이크로크레딧의 국제적 동향과 한국 미소금융의 과제: 지속가능성과 금융접근성을 중심으로, 「한국경제발전학회」, 제19권 제1호, 35~79.
- 한국개발연구원, 2013, 「저소득저신용 계층을 위한 서민금융상품에 대한 연구: 정책적 서민금융상품을 중심으로」.

한국금융연구원, 2012,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선방향」.

한국금융연구원, 2013, 「서민금융의 발전방향」.

한국금융연구원, 2016, 「국내 서민금융 현황 및 개선방안: 수유자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한국능률협회, 2017, 「서울시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마이크로크레딧 운영」.

ACCION America, 2017, 「Annual Report 2016」.

Clark, P., Kays, A., Zandniapour, L., Montoya, E. S., & Doyle, K., 1999, Microenterprise and the Poor: Findings from the Self-Employment Learning Project Five Year Study of Microentrepreneurs, The Aspen Institute.

European Microfinance Network(EMN), 2012, 「2010-2011 Overview of the Microcredit Sector in the European Union」.

「Financial Times」, 2014, Psychometrics help ease the huge EM funding gap, 6.24.

Kim, J. C., Watts, C. H., Hargreaves, J. R., Ndhlovu, L. X., Phetla, G., Morison, L. A., ... & Pronyk, P., 2007, Understanding the impact of a microfinance-based intervention on women's empowerment and the reduction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in South Africa,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97(10), 1794-1802.

Microfinance Information Exchange(MIX), 2017, 「2015 Global Outreach and Financial Performance Benchmark Report」.

Sanders, C. K., 2002, The impact of microenterprise assistance programs: A comparative study of program participants, nonparticipants, and other low-wage workers, Social Service Review, 76(2), 321-340.

서울 열린데이터광장(<http://data.seoul.go.kr/>), 검색일자(2018.09.01.).

정부입법지원센터(<https://www.lawmaking.go.kr/main>), 검색일자(2018.09.01.).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index/index.do>), 검색일자(2018.09.01.).

ADIE(<https://www.adie.org/microfinance-in-france>), 검색일자(2018.09.01.).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부록



ID				
----	--	--	--	--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성과 및 만족도 조사

※ 본 조사표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통계목적외로만 사용되고 보호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에서는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성과 분석 및 개선방안 수립”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의 경제적/비경제적 성과 및 만족도 설문을 실시하여 향후 본 사업의 활성화 및 개선방안을 보다 합리적으로 판단하는데 중요한 고견을 주신다는 마음으로 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응답은 향후 정책수립의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통계목적외로만 사용되고 그 **비밀은 반드시 보장**되오니,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시어 응답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 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8년 6월

- 주 관 : 서울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
- 조사기관 : 포인트맥리서치(주) (김민경 연구원 Tel. 02-587-6964)

A. 사업체 일반현황

A1	사업체명(국문)				A2	대표 자 성명			
A3	전화번호	() -							
A4	소재지(주소)								
A5	창업년도*	<input type="text"/> 년	A6	자본금	<input type="text"/> 백만 원				
A7	업종	① 교육서비스업 ② 도매 및 소매업 ③ 숙박 및 음식점업 ④ 제조업 ⑤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⑥ 기타(기입: _____)							
A8	주 근로일수	① 5일 미만		② 5.5일		③ 6일		④ 6.5일 ⑤ 7일	
A9	일평균 근로시간	① 8시간 미만		② 8~11시간 미만			③ 11~14시간 미만		
		④ 15~17시간 미만		⑤ 17시간 이상					

B. 창업자금 운영 관련

B1	자부담	1) 자부담 금액	<input type="text"/> 백만 원	
		2) 자부담 방법	① 본인 예금 ② 은행대출 ③ 친지 도움 ④ 지인도움 ⑤ 보유자산 매각 ⑥ 기타 (기입: _____)	

B2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1)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가입 시기	<input type="text"/> 년도
		2)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수혜 종류	① 창업 ② 경영개선지원금
		3)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을 통한 지원 금액	<input type="text"/> 백만 원
		4) 마이크로크레딧 수혜 유형	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차상위계층 ③ 저소득층 ④ 실직자 ⑤ 여성가장 ⑥ 한부모가정 ⑦ 다둥이가정 ⑧ 다문화가정 ⑨ 장애인 ⑩ 새터민 ⑪ '서울희망플러스통장' 또는 '서울꿈나래통장' 저축 완료자

B2. 4) 수혜 유형 참조

- ③ 저소득층 : 소득금액증명원 상의 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내(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환산기준 약 225,000원 이내, 국민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환산기준 약 72,500원 이내)
- ⑥ 한부모가정 : 막내기준 만18세미만 자녀양육자
- ⑦ 다둥이가정 : 2자녀 이상, 막내 만13세 이하
- ⑩ 새터민 : 북한이탈주민

B3 귀하는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을 어떤 경로를 통해 아시게 되었는지요? (최초 인지 경로 1개만 응답)

- ① 대중교통광고
- ② 공공기관(주민 센터 등) 홍보물
- ③ 위탁업체의 개별연락
- ④ 지인소개
- ⑤ 인터넷
- ⑥ 기타(기압)

C.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의 경제적 성과

C1 귀사의 마이크로크레딧 가입 당시(가입 후 1년 후 시점)와 2017년의 매출 및 부채 규모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재무 항목	마이크로크레딧 가입 년도 _____년	2017년
연 매출액	[] 백만 원	[] 백만 원
부채 총계	[] 백만 원	[] 백만 원

C2 (기초생활수급자만) 귀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수급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C3 귀사의 현재 고용 근로자 수를 기재하여 주십시오.(본인 포함)

총 계	정규직	계약직	임시 또는 아르바이트
[] 명	[] 명	[] 명	[] 명

C3-1 (C3 모든 고용 근로자 기준) 고용 근로자의 시간 당(혹은 월) 인건비

월	[] 만원
시간당	[] 천원

D4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의 개선점이나 요구사항은 무엇입니까? 향후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점에 대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D5 귀하는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수행기관의 사업 활동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다음의 항목별로 만족하시는 정도에 따라 1점부터 7점 사이의 점수로 평가해 주십시오.

항 목		매우 불만족한다 <----- 보통이다 -----> 매우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D5-1	선정기준의 적합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D5-2	서류 및 현장심사 과정의 적합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D5-3	면접심사 과정의 투명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D5-4	창업교육 시간의 적절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D5-5	창업교육의 효과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D5-6	컨설팅 횟수나 시간의 적절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D5-7	컨설팅 내용의 적절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D5-8	컨설팅 전문 인력에 대한 신뢰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D5-9	컨설팅의 효과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D5-10	그 외 수행기관에서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상담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 본인 사업에 대한 만족도

E1 본인의 사업에 대해서는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다음의 항목별로 만족하시는 정도에 따라 1점 부터 7점 사이의 점수로 평가해 주십시오.

항 목		매우 불만족 한다	----- 보통이다 -----					매우 만족한다
E1-1	취업 대신 창업을 선택한 것에 대한 만족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1-2	마이크로크레딧 지원 이후 변화된 인관관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1-3	마이크로크레딧 지원 이후 변화된 자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1-4	사업 소득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2 귀하는 현재 하고 계신 사업에 대한 향후 계획은 어떠하십니까?

- ① 현재 사업에 만족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다
- ② 현재 사업이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지속할 예정이다
- ③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업종을 바꿀 계획이다
- ④ 기타 (기입: _____)

F. 응답자 기본 정보

F1 성명		F2 연락처	
F3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F4 연령	만 <input type="text"/> 세
F5 최종 학력	① 고졸이하 ② 전문대졸 ③ 대졸 ④ 대학원졸(석사) ⑤ 대학원졸(박사)		
F6 결혼 유무/자녀	① 기혼 (자녀수 : _____ 명)		② 미혼

♠ 오랜 시간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Abstract

Assessing and Improving the Performance of the Seoul Microcredit Program

Min-Sup Hwang, Jun-Sik Bae, Mook-Han Kim, Dong-Yoon Kim

This study aims to assess and improve the performance of the Seoul Microcredit program. After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performance indicators for the Seoul Microcredit program and the six privately-commissioned execution organizations, and conducting interviews and surveys to stakeholders and beneficiaries, we propose institutional strategies for the Seoul Microcredit program. In addition, to provide insights for a systematic risk management, we analyzed the patterns of closure of business and subrogation of the 2,014 beneficiaries of Seoul Microcredit program from 2012 to 2017.

As a result of the assessment conducted by the study, it can be summarized that the Seoul Microcredit program and the six execution organizations succeeded in providing supportive consulting services for the beneficiaries. Further, the survival rate of the companies that received loans from the program was higher than that of the nation wide scale. However, the Seoul Microcredit and the six execution organizations failed to deliver effective promotions, entrepreneurship education, and community-based services. In addition to the assessed short-comings of the program, due to the legal amendment in 2015, it became inevitable to reorganize the business structure of the program.

This study suggests short-term and long-term reorganization plans for business system of the program, and risk management proposals. In the short-term, we propose the Seoul Credit Guarantee Foundation

(SCGF) to take charge of the program instead of the Seoul municipal government, while the six execution organizations remain only as post management service providers. In the long-term, we propose 25 district offices and the associated intermediate support organizations to be main actors of the program conducting from discovery, selection of the beneficiaries to consulting and education. In this way, we expect the Seoul Microcredit program to enhance effectiveness in performance through local-based service, to restore business consistency as to match the original intention, to support the economic independence of the vulnerable class, of the program.

Contents

01 Introduction

- 1_Background and Purpose of the Study
- 2_Research Scope and Methods
- 3_Performance Assessment Process

02 Introduction to Microcredit

- 1_Theoretical Background
- 2_Domestic and International Outlook

03 Major Issues of the Seoul Microcredit Program

- 1_Overview
- 2_Main Status
- 3_Problem Analysis
- 4_Similar Domestic Programs

04 Performance Analysis on the Seoul Microcredit Program

- 1_Performance Analysis Methods
- 2_Performance Analysis Results
- 3_Closure of Business and Subrogation Analysis

05 Performance Analysis on the Privately-commissioned Execution Organizations

- 1_Performance Analysis Methods
- 2_Performance Analysis Results of the Execution Organizations

06 Improvement Plan for the Seoul Microcredit Program

1_Implications of Performance Analysis Results

2_Improvement Plan for Project Execution System

3_Improvement Plan for Program Management